

Ningbā



*Ningbā*⁰¹
magazine

동아시아 문화도시 온라인전시관



한국
순천



중국
사오싱

한국
제주



한국
경주



중국
보먼



한국
경주



주최 | 저장성문화관광청 浙江省文化和旅游厅
주관 | 저장성문화관광마케팅센터 浙江省文旅推廣中心(首爾)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 Ningbo

당송 시대에는 명저우(明州)라는 이름으로, 명나라 때는 실크로드로 불리던 Ningbo는 후에 '파도가 평안하기를 빈다'라는 의미인 Ningbo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다. '운칠기삼'의 도시,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Ningbo는 운이 좋은 땅이다. 이런 Ningbo를 가리켜 중국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다.

“오래 살려면 Ningbo로 가고 삶이 순탄하려면 Ningbo에 가서 쉬여라. 위로는 천국이 있고 아래에는 쑤저우, 항저우가 있다. Ningbo의 침대 하나를 원하지 상하이 집 한 칸을 원하지 않는다. Ningbo의 한 그루 나무를 원하지 상하이의 작은 별장을 원하지 않는다. 어느 곳에도 가지 말고 Ningbo로 가라. 천하의 큰 어려움이 있으나 Ningbo 땅에는 근심이 없고, 천하의 가뭄에도 Ningbo에는 수확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Ningbo, 보물 같은 곳이어!”

이렇듯 Ningbo는 전국에서 자연이 아름답기로 이름나고, 전통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통한다. 코로나도 지진도 온갖 자연재해도 비껴간 곳, 그래서 사람들은 Ningbo를 ‘풍수명당’이라 부른다. 그리고 무엇보다 Ningbo는 한국인에게 친절한 도시다. 아름다운 자연과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 우리가 Ningbo로 여행을 떠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CONTENTS

002 **오픈글**

아름다운 자연과 유구한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곳, Ningbo

008 **닝보를 소개합니다**

닝보, 어디까지 알고 있니?

닝보를 대표하는 세 얼굴

닝보, 과거로의 시간여행

016 **자연으로 만나는 Ningbo**

동첸호(东钱湖) / 자전거를 타고 눈에 담는 그림 같은 풍경

쉐더우산(雪窦山) / 신선들이 모여 살 것만 같은 중국 5대 불교 명산

쓰밍산(四明山) / 겨울이면 얼음꽃이 피어오르는 별천지

스푸(石浦)어항 / 어민들의 응축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항구

034 **문화로 만나는 Ningbo**

구러우(鼓楼) / 동서양 건축의 융합, 문화의 중심지

텐이거(天一閣) / 세계 3대 개인 장서고

닝보박물관 / Ningbo의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는 거장의 건물

텐동사(天童寺) / 수려한 산세와 전설을 품은 1700년 역사의 고찰

바오귀사(保国寺) / 중국 전통 건축문화 발전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찰

056 **인문으로 만나는 Ningbo**

라오와이탄(老外灘) / Ningbo의 지난 백 년이 살아 숨 쉬는 거리

칭황마오(城隍廟) 상업 거리 / 가장 젊은 Ningbo를 만날 수 있는 중심가

텐이(天一)광장 음악분수 / 황홀경을 선사하는 아시아 최대 음악분수

위예후(月湖) 공원 / 전설적인 문인들의 혼이 깃든 녹음 짙은 공원

난탕라오지에(南塘老街) / 타임머신을 타고 도착한 옛 Ningbo 모습

치안통(前童) 옛 마을 / 명나라 기풍을 느낄 수 있는 운치 있는 시골 마을

082 **음식으로 만나는 Ningbo**

닝보 탕위안(湯圓) / 대륙 최고의 탕위안

유바오(油包) / 만두피 속에 가득 찬 Ningbo

닝보 카오차이(烤菜) / 다양한 조합, 아삭한 불맛

두부피황어(豆腐皮黄鱼) / 놓칠 수 없는 Ningbo의 명물 요리

닝보 삼취(三臭) / 냄새는 강하지만, 맛은 향기롭다

닝보 떡 / 함께 추억을 쌓으며 먹는 음식

해산물 요리 / 바다와 강으로부터 비롯된 풍부한 해산물요리

098 **청년들의 Ningbo 답사 리얼 후기**

Ningbo에서 함께 한 모든 순간이 좋았다 / 김나정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본 여행 / 신석현

최고의 여행지임을 장담합니다 / 이소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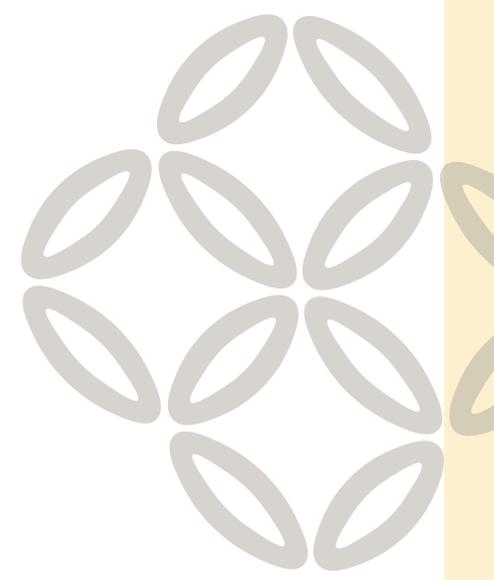
힐링 도시에서 낯선 즐거움에 젖다 / 한은진

가족과 다시 와 보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 / 김시현

우중산책: “海丝古港 微笑宁波” / 여수호

유구한 역사 유적부터 옛 소촌의 고전적 풍취까지 / 정지원

124 **엔딩글**



닝보 매거진
NINGBO MAGAZINE

발행일
2023년 6월 10일

발행처
저장성문화관광청 / 중앙일보

발행인
DING ZHENZHE(丁振哲)

편집 / 디자인 및 제작
MAGAZINE PAPER / MAYDAY

편집장 & 아트디렉터
정유희

편집 기자
박정현, 김양미, 노치원

편집 디자이너
백예진

교정
김지우

인쇄
(주)우일인쇄

중앙일보
서울시 세종대로55 부영태평빌딩

Ningbō
magazine

과거와 현재가 뒤섞인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 寧波

세계에서 가장 높은 좌불상 볼 수 있는 雪竇山



다양한 저장성 관광지



텐이거
天一閣, 천일각



쉬에더우산
雪竇山, 설두산



시커우
溪口



라우와이탄
老外灘, 노외탄



닝보박물관
寧波博物館



저장성 홈페이지

닝보를 소개합니다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 전설처럼 들려오는 옛이야기들이 강 따라 흐르다가 바다와 만나는 곳. 7000년 전 허무두 문화(河姆渡文化)의 발상지이자 중국해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 중국 제일의 해산물 요리를 만날 수 있는 맛의 고향. 전통과 모던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현대의 중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곳. 이제, 우리를 기다려 온 닝보를 만나 보자.



닝보, 어디까지 알고 있니?

닝보(寧波, 영파)라는 도시 이름은 '잔잔한 파도'라는 뜻으로, 동경 120°55'-122°16', 북위 28°51'-30°33' 사이에 위치한다. 저장성 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쯔강 삼각주(長江三角洲)의 남쪽에 위치한다. 면적 9,816평방킬로미터로 하이수구(海曙区), 장베이구(江北区), 진하이구(鎮海区), 베이룬구(北侖区), 인저우구(鄞州区), 평화구(奉化区), 위야오시(余姚市), 츠시시(慈溪市), 닝하이현(寧海縣), 상산현(象山县)으로 구분된다. 닝보는 동해에 인접해 있어, 중국 대운하의 남단에서 유일한 출항이다.



면적
9,816 km²



해역
8355.8 km²



인구
961 만 명



저우산항구
세계에서 3 번째로 분주한 항구



GDP
중국 도시 중 12 위



섬 개수
611 개



항저우만 대교
중국에서 2 번째로 긴 다리



대표 꽃
동백꽃 (Camellia)



온도
연평균 기온 16.4°C

닝보를 대표하는 세 얼굴



역사적으로 문화가 발전된 지역

닝보에는 당나라 때부터 중국 최초의 개인 책 저장 박물관인 텐이거(天一閣)와 불교계에서 영향력이 큰 선사, 그리고 상하이 와이탄(外滩)보다 역사가 더 오래된 라오와이탄(老外滩)이 있다. 항구 도시에서 강남의 수향으로, 7000년 전 '허무두 문화'의 발상지에서 당나라 해상 실크로드 의 동방 출발항으로, 중국 대운하 남쪽 출구에서 근대 '5대 통상 항구' 중 하나로 유명한 지역이다. 또한 역사에 이름을 떨친 '양명학 파'에서 닙보와 세계 각지를 긴밀히 연결하는 '닝보방'까지 모두, 이 도시가 남긴 자취이다.



상업 발달 및 대외 무역 발전

닝보는 오래전부터 상업이 발달했다. 일찍이 중국 10대 상업 조직 중의 하나였으며, 근대화 변혁에 성공한 유일한 지방 상업 단체이다. 닙보는 2004년부터 연속으로 포브스 중국 최고의 상업 도시 10위 안에 들었으며, 1984년 중국의 14개 대외 개방 도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오랜 대외 무역 전통과 우수한 항구 시설 등으로 무역 수출액이 중국 본토 무역 수출 총액의 5.5%를 차지하며 중국 도시 중 10위 안에 든다. 닙보시 전체 고용 인구의 4분의 1이 대외 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대외 무역 기업이 10,000개 이상, 연간 수출입액이 1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100개 이상 있다.



해산물 요리로 유명한 지역

닝보 요리는 '용방차이(甬幫菜)'라고도 부른다. 닙보 요리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명성을 떨쳤다. 중국 저장성에서 유래하는 요리인 저장차이(浙江菜)에 속하며 주로 볶음, 튀김, 찜, 굽기, 절임 등 8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닙보 요리는 30가지 이상의 조리 방법이 있으며, 중국 동해 해산물, 내륙 하천의 신선한 민물고기 요리가 가장 유명하다. 신선하고 짭맛이 강하며, 절임 요리를 많이 먹고 발효 식품도 많이 선호해 '향이 강한 음식'의 특징을 지닌다.



닝보, 과거로의 시간 여행

닝보의 역사는 8,300년 전 징터우산(井頭山) 유적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나라는 닝보를 명저우(明州)라고 불렀고, 이곳은 지리적 우세에 의존하여 당대의 개항지가 되었다. 한편 닝보는 일본, 고려 등의 나라와 빈번한 무역 왕래를 했다. 인구가 남쪽으로 대거 이동한 덕분에 닝보는 농업 생산과 문화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다. 대외 무역의 발전은 닝보를 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지로 만들었다. 원나라 때부터 닝보는 이미 남북 화물의 집산지이자 전국에서 매우 중요한 항구 중 하나가 되었다.

명나라 때 해금 정책으로 인해 닝보의 해운이 쇠퇴하기는 했으나 닝보 상업 단체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청나라 때 닝보에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저동(浙東) 사학이 등장했으며, 서양과의 교류도 점점 더 빈번해졌다. 아편전쟁 후 1844년에 닝보가 다시 개항했고 외국 자본의 유입으로 현지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 닝보 상업 단체는 근대적 상업의 형태로 변모하기 시작했고, 상하이로 주요 활동지로 삼아 상하이의 도시 건설과 상하이의 문화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과 모던함의 조화

‘고요한 물결’이라는 뜻의 닝보는 바다에서 따온 이름이다. 아름다운 산을 등지고 있는 이 해안 도시는 수 세기 동안 무역을 통해 꾸준히 발달해 왔으며 그 결과 중국에서 가장 번성하는 도시 중 한 곳이 되었다. 오래된 골목길과 현대적인 상권, 문학적인 아우라가 곁들여 있는 풍경과 창조적인 건축물, 동양의 사원과 서양의 교회 등이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전통문화와 현대적 유행이 뒤섞여 있는 이곳, 닝보는 새것과 옛것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문학적 분위기

문학의 기운은 닝보를 오랫동안 감싸 안고 있다. 텐이거는 중국 최초의 사립 도서관이며 이곳에는 수많은 고서적과 역사를 대변하는 책들이 꽂혀 있다. 방효유(方孝孺), 왕양명(王陽明), 황종희(黃宗羲)는 닝보가 배출한 위대한 유학자이다. 백운장(白雲莊), 도원서원(桃源書院)은 고대 문인들이 회합을 이룬 장소이다. 현대의 닝보에는 1844, 예술라이프센터, 푸스(普斯) 마을 등 신세대의 아이디어가 넘쳐나는 거리가 도시에 활력을 더해 주고 있다. ‘독서’라는 테마를 가진 서점, 유스호스텔, 카페에는 새로운 시대를 대변하는 문화 예술 청년들이 삼삼오오 모이고 있다.

시커우(溪口)의 풍경과 장제스의 고향

시커우는 장제스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시커우의 동쪽은 우링(武嶺), 남쪽은 산시(剡溪), 북쪽은 쉐더우산(雪竇山)과 접하고 있다. 물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전설처럼 들려오는 옛이야기들이 목가적인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 쉐더우산에 오르면 도시의 번잡함을 잊고 혼자 유유자적하게 보낼 수 있는 그림 같은 풍경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장제스의 고택에는 그의 일생에 관한 이야기가 스며 있어 그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근대의 중국으로 데려가 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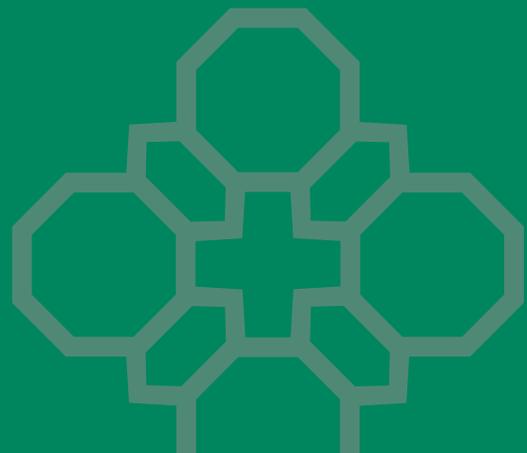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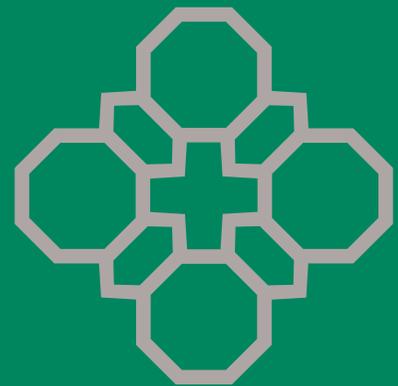
24시간 맛집의 향연

닝보의 간식이라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닝보 탕위안(寧波湯圓)’을 외친다. 의심할 여지 없이 중국에서 탕위안이 가장 맛있는 곳으로, 한입 베어 물면 탱글탱글한 식감과 진한 달콤함이 입과 코를 즐겁게 한다. 탕위안을 제쳐 두더라도 떡과 혼툰(馄饨), 요우잔즈(油贊子), 미엔지엔미엔(面結面), 치엔칭빙(千層餅)을 비롯한 수십 가지의 간식이 모든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또한 닝보는 바다의 도시이기에 해산물로 만든 요리도 중국 어느 지역과 겨뤄도 뒤지지 않는다. 오래된 맛집, 해산물 식당, 서양식 레스토랑, 맛집으로 가득한 닝보는 당신의 오감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자연으로 만나는 닝보

양쯔강 삼각주 남단에서 동중국해 정중앙을 마주하고 있는 닝보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이다. 속이 탁 트이는 드넓은 바다는 물론이고, 내륙에서부터 흘러온 세 강물이 한데 만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물의 힘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웨더우산을 비롯한 천하절경은 계절마다 색다른 옷을 입으며 사시사철 그림 같은 풍경을 선사한다. 방문객은 닝보의 산과 물에서 유유자적 노닐며 도시의 번잡함을 잊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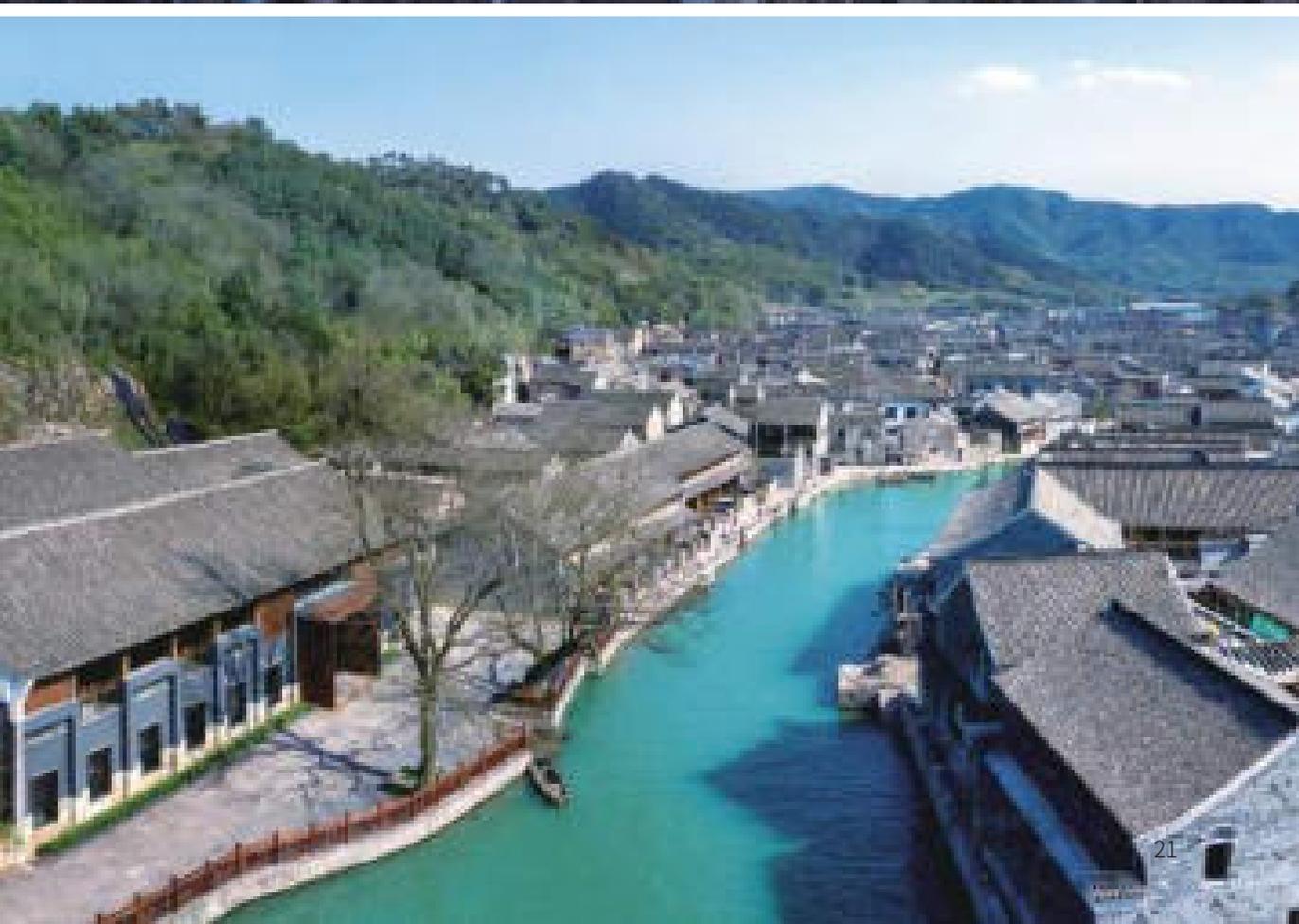




동첸호(东钱湖)

자전거를 타고 눈에 담는 그림 같은 풍경

동첸호는 저장성에서 가장 큰 담수호로, 구자호(谷子湖), 메이호(梅湖), 외호로 구성돼 있다. 단순히 항저우 시후(西湖)와 비교하면 3배 크다. 동첸호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소는 샤오푸타산(小普陀山) 근처의 장제(长堤)이다. 샤오푸타는 긴 독으로, 이곳을 따라 걸으며 동첸호의 경치를 감상하다가 호수 중심에 있는 하서선사에서 향을 피우며 복을 기원하는 것은 하나의 코스다. 호수를 따라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여유롭게 호수 연안과 자연마을을 감상하는 것도 추천한다. 그뿐만 아니라 동첸호의 메이(梅)원은 닝보시에서 가장 유명한 매화 관람 명소 중 하나이기에, 계절에 맞게 닝보에 방문했다면 그곳에서 은은한 매화 향에 취해 아름다운 풍경을 즐기는 것도 좋겠다.





웨더우산(雪竈山)

신선들이 모여 살 것만 같은 중국 5대 불교 명산

웨더우산은 저장성 평화시(奉化市) 시커우진(溪口镇) 서북부에 위치한 해발 800미터 높이의 산이다. 쓰밍산(四明山)에서 뿔어 나온 산맥 중 가장 높은 산이라서 ‘쓰밍 제1의 산’이라고도 불린다. 웨더우산은 한나라 당시 ‘해상 평라이(蓬萊)’라고 불리며 화둥 지역 주요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웨더우산에 있는 웨더우사(雪竈寺)는 1700년 역사를 자랑하는 천하 10대 선종 사찰 중 하나로, 민간 전설에 따르면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다운 산세를 자랑한다. 웨더우산에 방문한다면 이곳에 있는 노천 미륵대불상은 놓칠 수 없는 코스다. 특히 깎아지른 절벽에서 쏟아지는 천장암폭포(千丈岩瀑布)는 그야말로 천하 절경인데, 높은 전망대에 올라 폭포를 바라보며 숲의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면 신선이 된 기분마저 든다. 이곳의 영험한 기운을 몸소 느끼고 싶노라면, 왜 이곳이 중국 5대 불교 명산인지 쉬이 납득할 수 있다.





쓰밍산(四明山)

겨울이면 얼음꽃이 피어오르는 별천지

닝보시 인근 5개의 현과 시가지에 있는 쓰밍산은 울창한 산림과 맑은 물로 유명한 장소다. 각종 새와 짐승이 출몰하는 우수한 생태 환경을 지닌 곳으로, 토이(兔耳)령의 괴석이 수려하며, 제2의 루산(廬山)으로 불려 왔다. 쓰밍산에 모여 있는 산들은 평균 해발 700미터 안팎으로 접근성도 좋아 피서를 즐기기에 이상적인 곳이다. 쓰밍산 봉우리 중에서는 높이로 따지자면 웨더우산이 해발 800미터로 가장 높고, 룡후산(龍虎山)의 기세가 장관이라고 평가 받는다. 사시사철 아름다운 쓰밍산이지만, 특히 겨울이면 산에서 피어오르는 산안개가 얼어 반짝이는 은가루처럼 산꼭대기에 있는 소나무를 덮는데, 마치 얼음으로 된 다양한 꽃과 종유석순이 피어난 것처럼 아름답다. 바다의 산호섬 같기도 하고, 온 산의 화초와 나무가 마치 옥으로 만든 것처럼 빛나, 이 시기에 쓰밍산을 찾는 사람들은 황홀경을 마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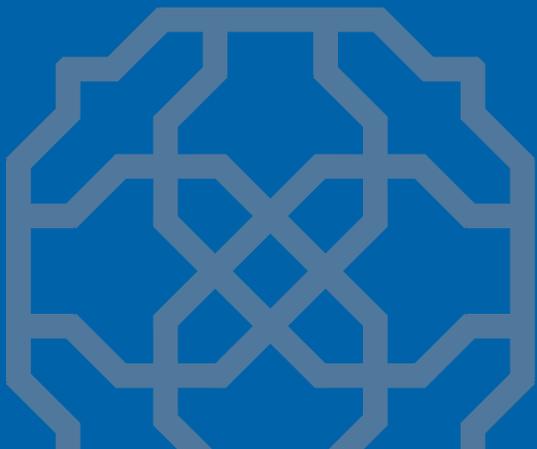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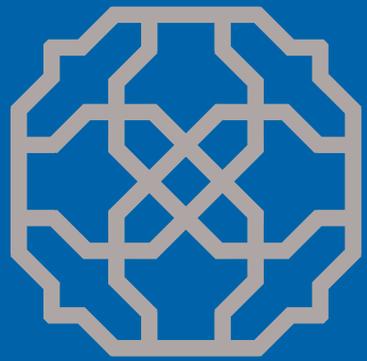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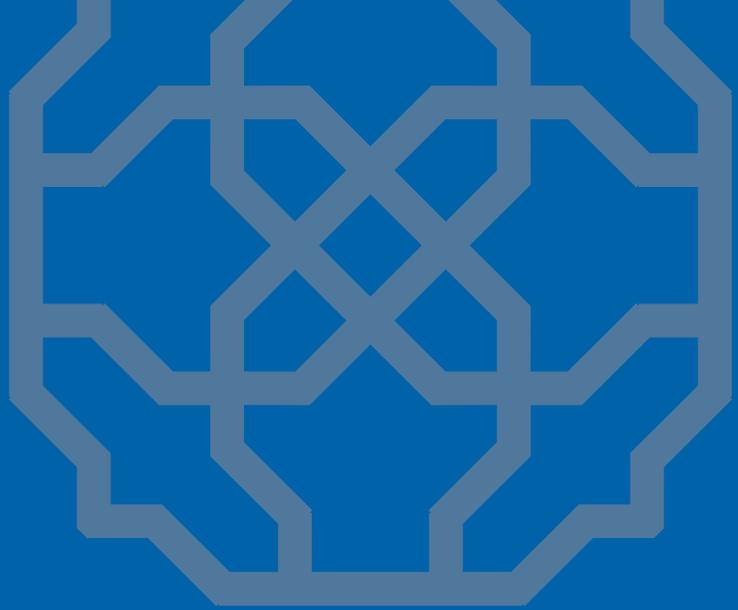


스푸(石浦)어항

어민들의 응축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항구

저장성 해안 중부와 상산반도(象山半島) 남단에 위치한 스푸어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긴 해안선을 지니고 있다. 해안선의 한쪽 끝은 깊은 계곡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쪽 끝은 대대로 어업에 종사하며 바다에서 생활한 어민들의 삶의 터전, 어항과 연결된다. 121개의 섬과 암초로 이루어진 바다는 독특한 자연 경관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대대로 평생을 살아온 스푸 사람들은 다른 곳과 비교할 수 없는 이곳만의 문화를 가꿔 왔다. 시대가 변했지만, 여전히 스푸 거리를 거닐다 보면 명·청 건축의 흔적과 어민 문화의 향기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성곽은 험준한 산세에 맞게 높게 솟아 있고, 성문은 명대부터 시작해 지금도 복적이기는 변화한 상업 거리로 관광객을 이끈다. 100개가 넘는 수많은 상점, 수십 년의 역사를 거쳐 온 고택을 가득 채운 에너지는 방문객이 반드시 봐야 할 볼거리 중 하나다.





문화로 만나는 닝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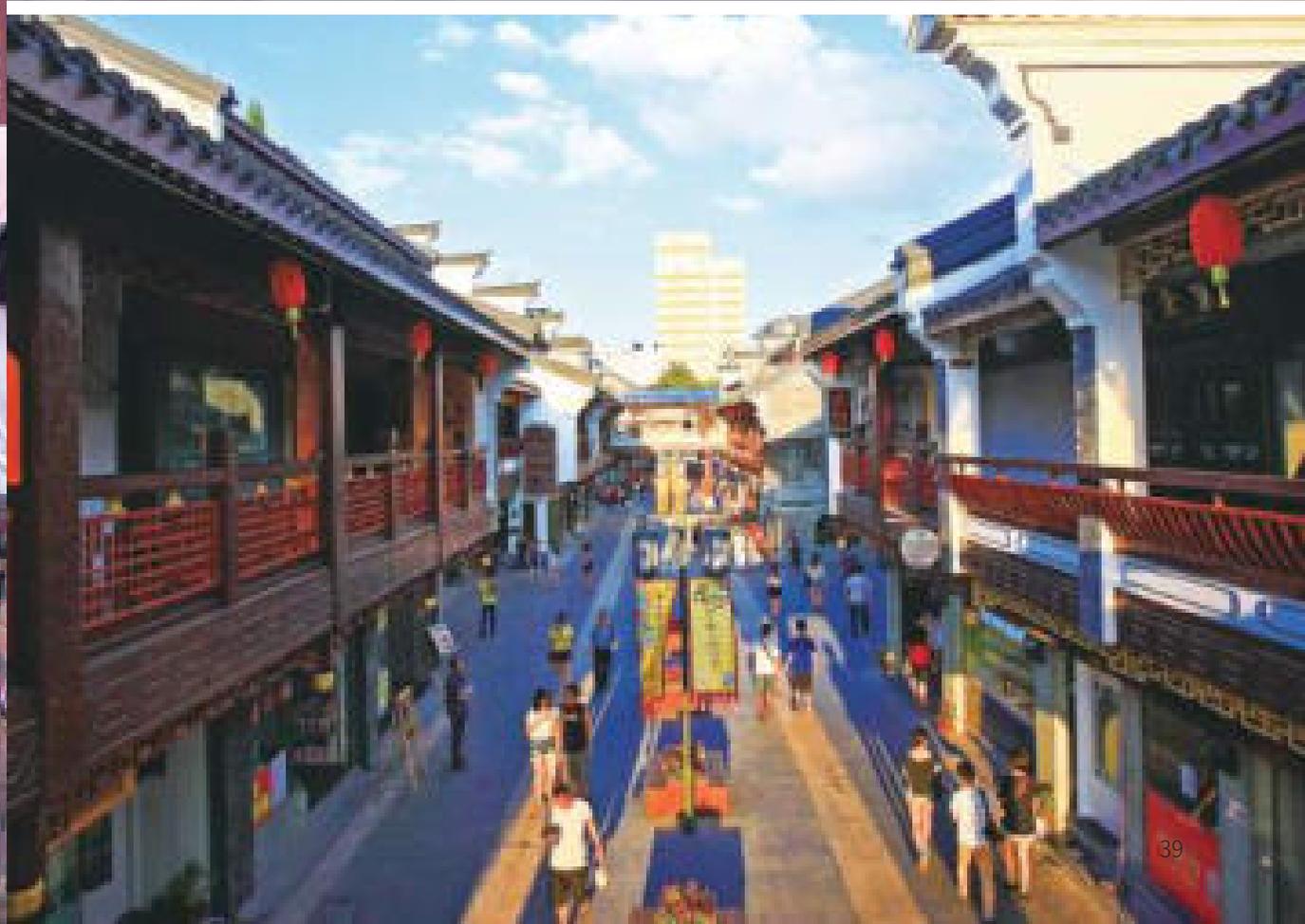
아름다우면서도 풍요로운 자연을 지닌 닝보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 유명하다. 7000년 전에 시작된 허무두 문화의 발상지이면서,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인 닝보는 예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항구에 의해 태어나 상권에 의해 믿음이 생기고 문화로 이름을 날린다'라는 말은 닝보의 지역적인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본토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무역을 통해 아름다운 문화를 가꿔 온 닝보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 준다.



구러우(鼓楼)

동서양 건축의 융합, 문화의 중심지

해서루(海曙樓)라고도 불리는 구러우는 Ningbo시에 현존하는 유일한 고대 성루 유적지이다. 중국 국가유물 중점 보호구역의 옛 건축물 중 하나인 구러우는 총 3층에 5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이하게도 팔작지붕 위에는 로마 시대 건축 양식의 종탑이 위치해 있다. 동서양의 건축이 융합된 구러우는 관광객이 이국적이면서도 웅장한 감흥을 느끼게 한다. 관광객은 북쪽 성벽을 통해서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는 Ningbo시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구러우 내부에는 Ningbo시의 발전 과정을 보여 주는 전시실도 마련되어 있다. 근처 공원으로 지역은 Ningbo의 주된 문화 행사가 열리는 핫플레이스다. 계절에 발맞춰 열리는 미술 전시회, 서예 전시회, 사진 전시회 등은 놓칠 수 없는 문화 행사이기도 하다. 문화 행사를 즐겼다면, 식욕을 돋우는 냄새를 따라가 보자. 구러우 주변의 고종 거리 구역에서 Ningbo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을 원 없이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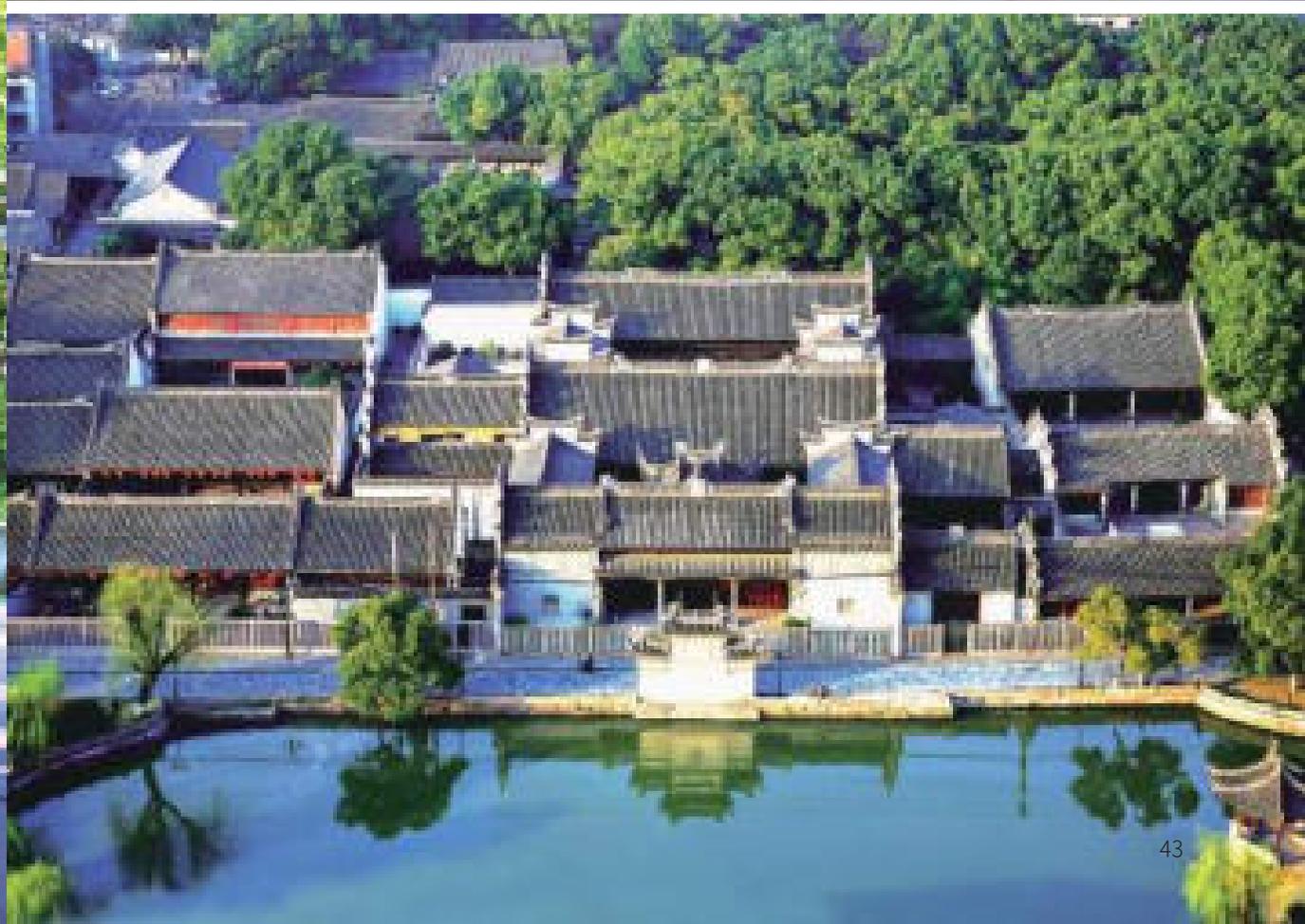




텐이거(天一閣)

세계 3대 개인 장서고

닝보시 위에후(月湖) 서쪽의 텐이 거리(天一街)에 위치한 텐이거(天一閣)는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장서각이다. 중국 명나라 중기에 건축되었으며, 당나라 판친(范欽, 범흠)이 건축을 주도했다. 한때는 7만여 권에 달하는 도서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나, 근대에 들어서 대부분의 책이 도둑맞거나 파손되어, 현존하는 책은 13,000여 권 정도라고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천일각에 대한 학술 조사 및 기부를 통해서 도서는 다시 30만 권에 이르렀다. 건축물은 목조, 석조각, 금박, 조각 등 다양한 전통 기술이 융합되어 만들어졌다. 후대 다른 개인 장서각의 탄생에도 영향을 주었을 정도로 Ningbo의 민간 건축을 대표하는 건축물이다. Ningbo에 방문할 예정인 방문객이라면, 이탈리아 체세나의 말라테스티아나 도서관과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 도서관과 함께 세계 3대 개인 장서고 중 하나로 꼽히는 텐이거를 놓치지 말고 방문하자.





닝보박물관

닝보의 과거와 현재를 품고 있는 거장의 건물

2012년 프리츠커상 수상자 왕수(王澐)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Ningbo 박물관은 건축 그 자체로 꼭 방문해야 할 명소다. 저장성 항저우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는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지역에서 수집한 폐자재를 활용해 지역성과 역사성을 드러내는데, Ningbo 박물관 또한 그러한 방식으로 지어져 Ningbo 그 자체를 상징한다. 시멘트 구조 외벽에 오래된 청색 벽돌이 붙어 있으며, 내부 전시 역시 Ningbo 지역 특색을 반영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전시실은 총 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 전시실은 임시 특별 전시로 일부는 별도의 입장료를 지불해야 관람할 수 있으며, 2층과 3층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박물관 2층에는 주제 전시물 <동방의 '신주'· Ningbo 역사>가 전시되어 있는데,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볼거리이다. 3층에 전시된 대나무 조각과 '아라'라는 이름의 오래된 Ningbo 민속 전시물은 2층보다 더욱 생생한 역사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오래된 Ningbo 거리를 복원해 놓은 전시실은 마치 지난 세기의 Ningbo 거리를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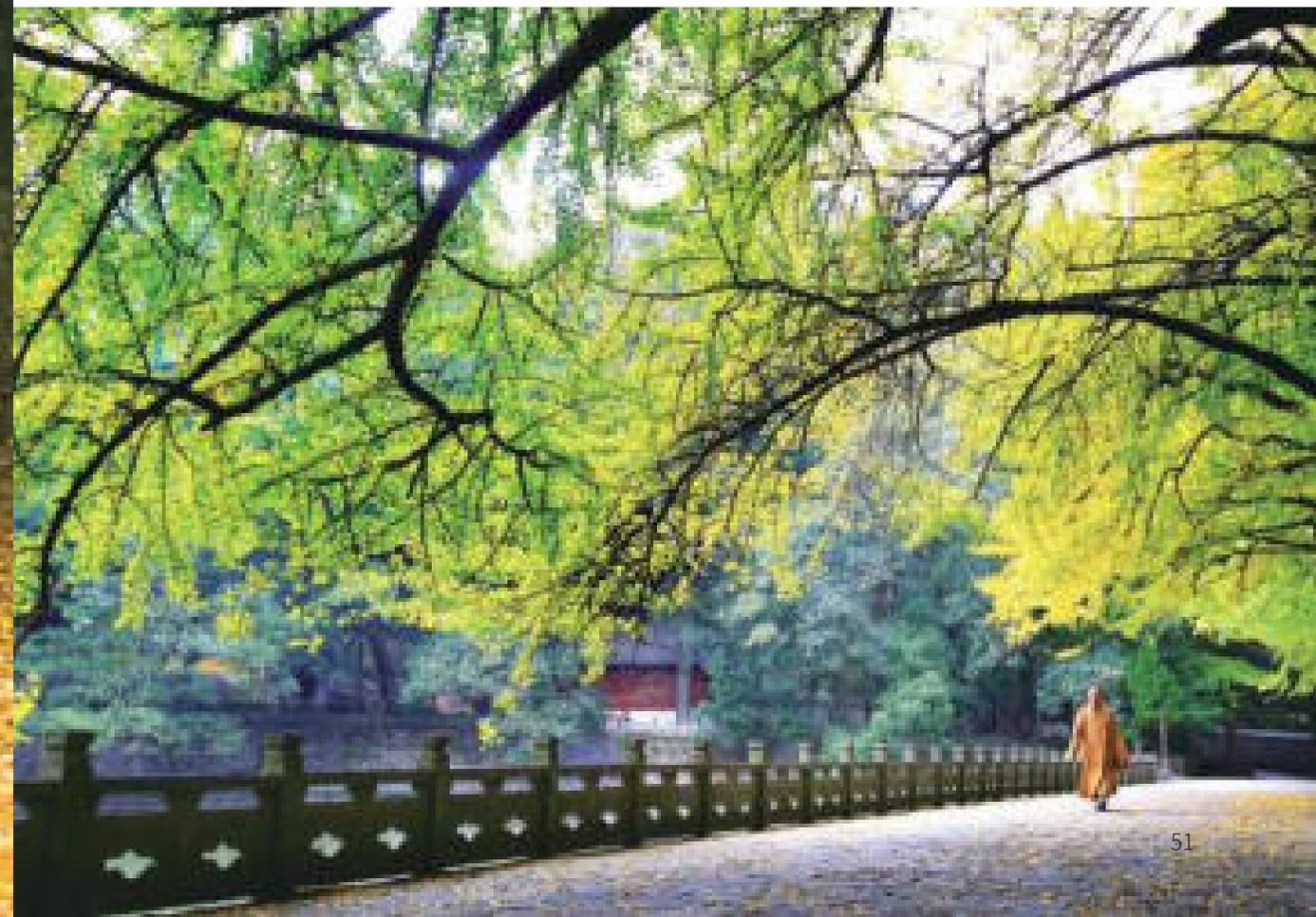




텐동사(天童寺)

수려한 산세와 전설을 품은 1700년 역사의 고찰

닝보 아육왕사 동쪽에 위치한 텐동사는 선종의 5대 명사 중 하나인 '동남불국'이라 불리는 선종십방촌림(禪宗十方丛林)의 대표적인 절이다. 17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텐동사는 현재에도 대부분 명조(明朝)의 격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원형이 잘 보존된 몇 안 되는 고찰이다. 저장성 중점문화재로 지정된 이곳은 송나라 때 무려 전각이 999동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고, 지금도 730동이나 남아 그 웅장함을 유지하고 있다. 거대하고 높은 천왕당, 불당, 법당, 재경루, 라한당 등의 주요 건물은 넓은 단상에 위치한 층층이 높아지는 구조로, 절을 둘러싼 산과 함께 압도적인 위용을 뽐낸다. 이곳을 스쳐 지나간 수많은 고승의 이야기가 수려한 산세와 함께 전설처럼 전해 오는 텐동사를 부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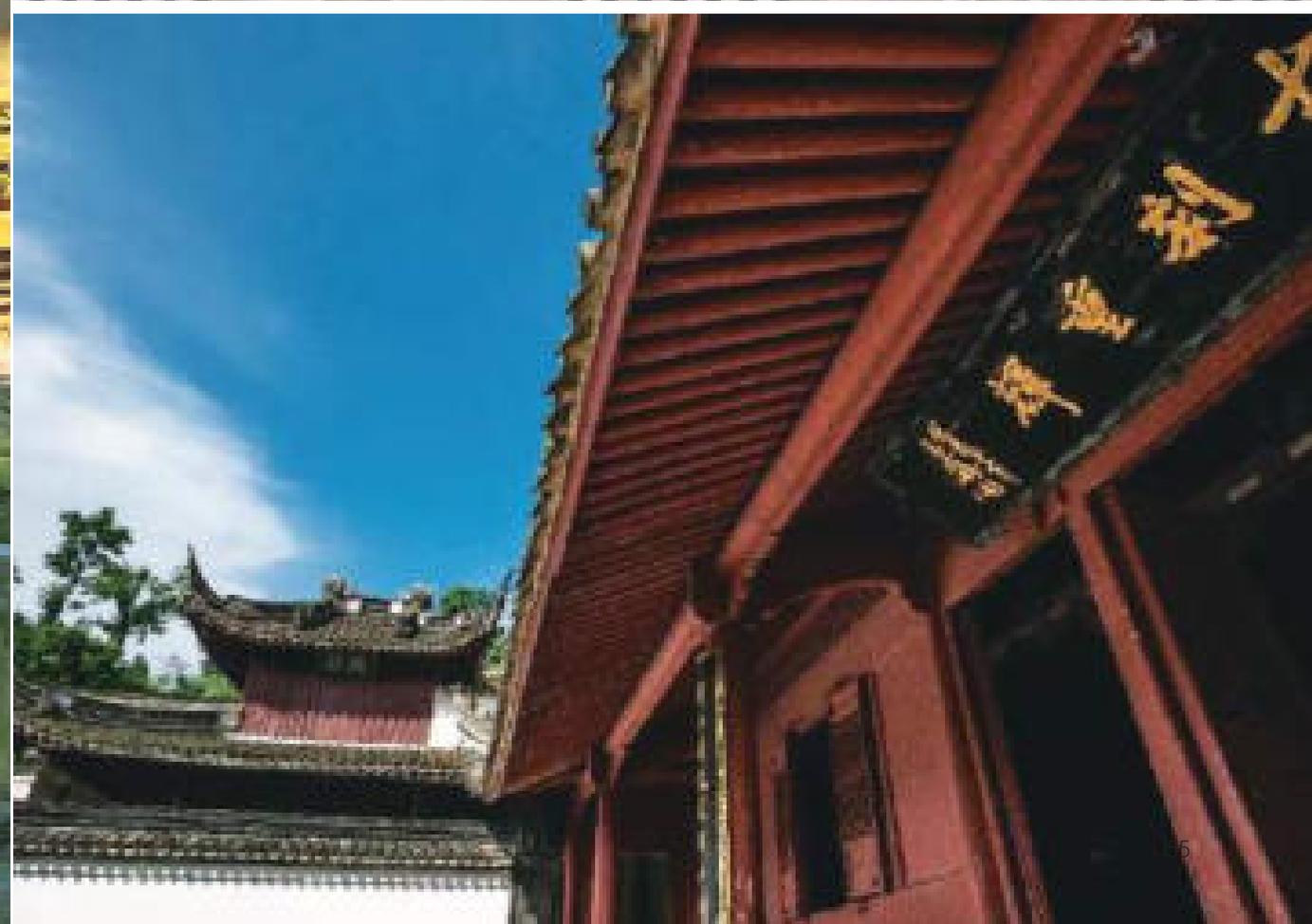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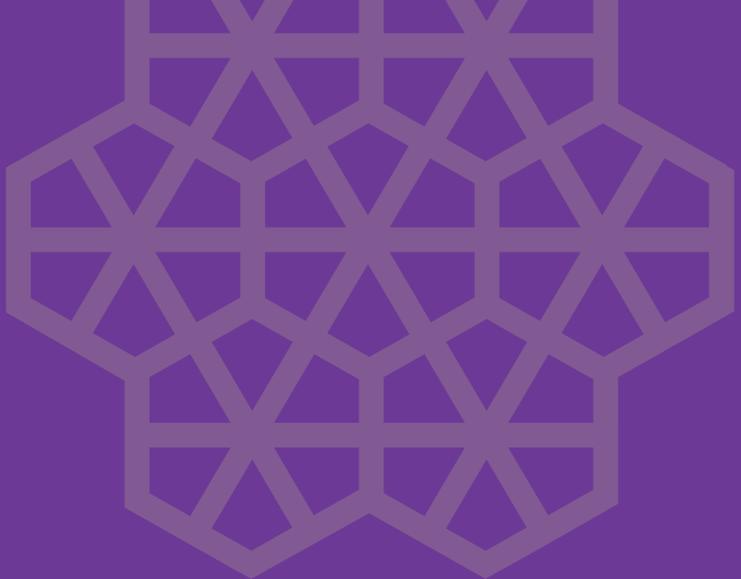


바오귀사(保國寺)

중국 전통 건축 문화 발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찰

바오귀사는 천년이란 오랜 세월을 버틴 유명한 절이자, 중국에서 제일 초기에 지정된 국가유물 중점 보호구역의 문화 유적 중 하나이다. 바오귀사의 유구한 역사는 동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당대에 다시 건축되어 당의 희종에 의해 ‘바오귀사’라는 이름을 받았다. 사원 내에 당, 송, 위, 명, 청, 민국 시대의 건축물이 각기 다른 특색을 뽐내며 어울려 있으므로, 이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중국 건축 문화의 발전을 한눈에 살필 수 있다. 특히 경내 대웅보전은 북송 대종향부 6년(1012)에 건립되어, 산둥(山東) 지방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목조 건축물이다. 거기에 더해 대웅보전은 ‘벌레가 없고 새가 앉지 않으며 거미줄과 먼지가 없는 현상’으로 유명한데, 향나무의 일종인 나사백이라는 목재가 강렬한 향내를 뿜어서 새와 곤충을 방지한다는 게 후에 드러났다. 이곳은 유물과 자연산림이 어우러져 관광, 휴양이 결합된 종합 문화 공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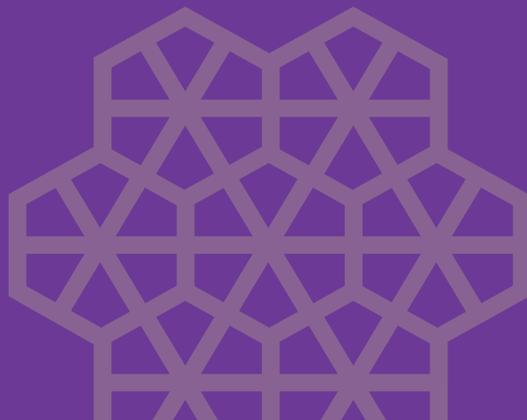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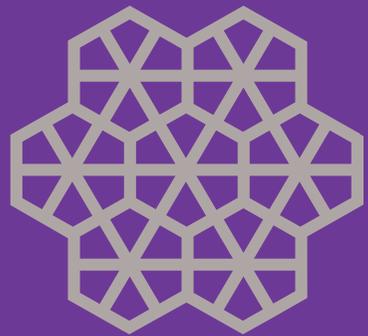




인문으로 만나는 Ningbo

Ningbo는 세계문화유산인 중국 대운하와 해상 실크로드의 시작점으로, 고향(古港) ‘활화석(活化石)’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대운하의 남쪽 끝에 있는 항구에서부터 현대 양쯔강의 5대 상업항으로 부상하기까지, 흐르는 물 따라 찬란한 역사를 꽃피웠다. 양명학파를 비롯해 역사적으로 유명한 수준 높은 지방 학파를 탄생시켰고, 수많은 문화계 거장들을 배출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를 긴밀하게 연결한 Ningbo 방은 Ningbo만의 진취적인 정신을 보여 준다.

* Ningbo방: 19세기말 20세기 초 Ningbo 사람이 상하이에서 형성한 조직. 장사와 재무에 능해 유명해짐.





라오와이탄(老外灘)

닝보의 지난 백 년이 살아 숨 쉬는 거리

닝보의 중심인 삼강구 북쪽에 위치한 라오와이탄은 저장성의 대표적인 중심 휴양지로 동쪽은 용강, 서쪽은 인민로, 남쪽은 용강대교, 북쪽으로는 유효터와 인접해 있다. 상하이의 와이탄보다 20년 먼저 조성되었고, 중국 근대 항구 문화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닝보의 지난 백 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 유럽식 건축법으로 지어진 건물들은 현재 아기자기한 바와 레스토랑으로 개조해 이곳만의 독특한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에 일조했다. 낮에는 한적하고 붐비지 않아 오래된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핫플레이스로 유명하고, 저녁에는 흐르는 노래와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북적이는 사람으로 활기가 넘친다. 강변을 걸으며 매력적인 야경을 감상하고 예스러운 건물에서 식사하는 경험만으로도 닝보의 매력을 흠뻑 느끼게 될 것이다.





청황묘(城隍廟) 상업 거리

가장 젊은 Ningbo를 만날 수 있는 중심가

Ningbo시 중심 지역에 위치한 청황묘 상업 거리는 Ningbo의 민속 문화와 더불어 Ningbo 제일의 미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다. 남쪽으로 우뚝 솟아 있는 티엔펑타(天峰塔)가 랜드마크이며, 입장료를 내고 탑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한눈에 Ningbo 시내의 변화한 모습을 내려다볼 수 있다. 청황묘 북쪽에는 새로운 상업지구인 텐이광장이 있으며, 현대적인 브랜드가 한데 모인 쇼핑몰이 이곳에 있기에 쇼핑을 즐기는 관광객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 서쪽에 있는 위에후(月湖) 공원으로 가면 번잡한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호수를 따라 산책하며 동양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정자와 정원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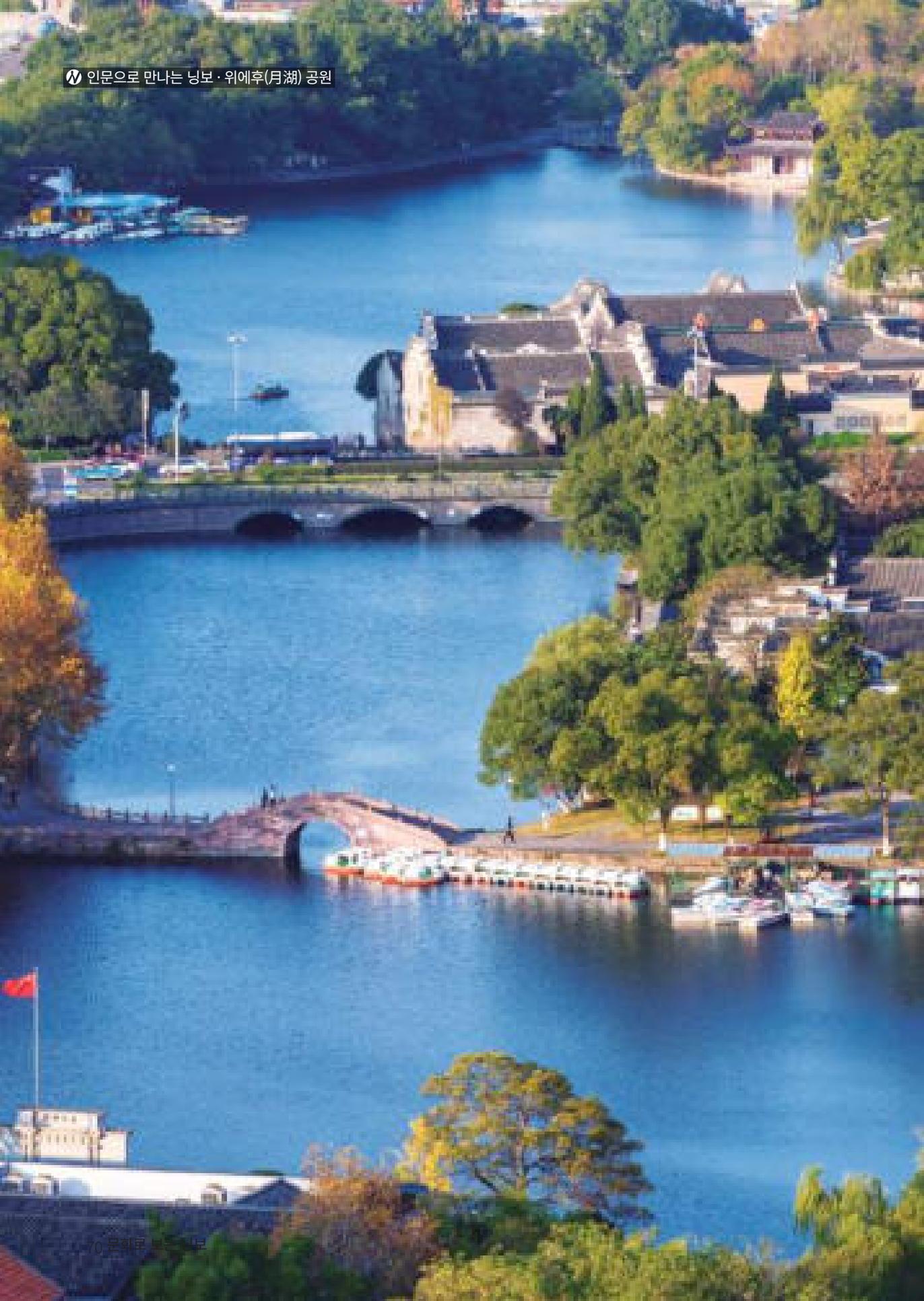


텐이(天一)광장 음악분수

황홀경을 선사하는 아시아 최대 음악분수

닝보에서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인 텐이광장은 유럽풍의 현대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최대 상업지구이다. 늘 젊은이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저장성의 현대를 응축해서 보여 주는 듯하다. 광장 주변에는 약항전, 영정, 천주교 성당 등의 오래된 건축물들이 현대식 건물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무엇보다 35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광장과 수영장과 분수가 포함된 6,000제곱미터 넓이의 수역이 있다. 중앙 광장에 설치된 음악분수는 높이만 40미터로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음악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로 물줄기가 변화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거기에 20미터 높이의 워터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영화 또한 환상적인 시간을 선사한다.





위예후(月湖) 공원

전설적인 문인들의 혼이 깃든 녹음 짙은 공원

시후(西湖)라고도 불린 이 호수는 Ningbo시 남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 무려 당나라 시대에 형성된 위예후(月湖)에 조성된 공원이며, 북송, 남송 시기를 거쳐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남송 시절 정자 누각을 넓게 쌓고 꽃과 나무를 심어 호수 근처 아름다운 경치를 완성했다. 송나라 이래 저장성 동부 지역 학문의 중심지였으며, 유명한 문인들의 휴식처로 역사가 깊다. 당나라의 대시인 하지장(賀知章), 북송의 문장가 왕안석(王安石) 등의 문객들이 이곳에 은거했다고 전해진다. 호수의 넓은 곳은 보름달, 좁은 곳은 초승달처럼 보여 위예후(月湖)라 이름 붙여진 이곳은,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자연뿐 아니라 대대로 전해 오는 전통문화도 한데 어우러져 방문객의 마음에 깊은 잔상을 남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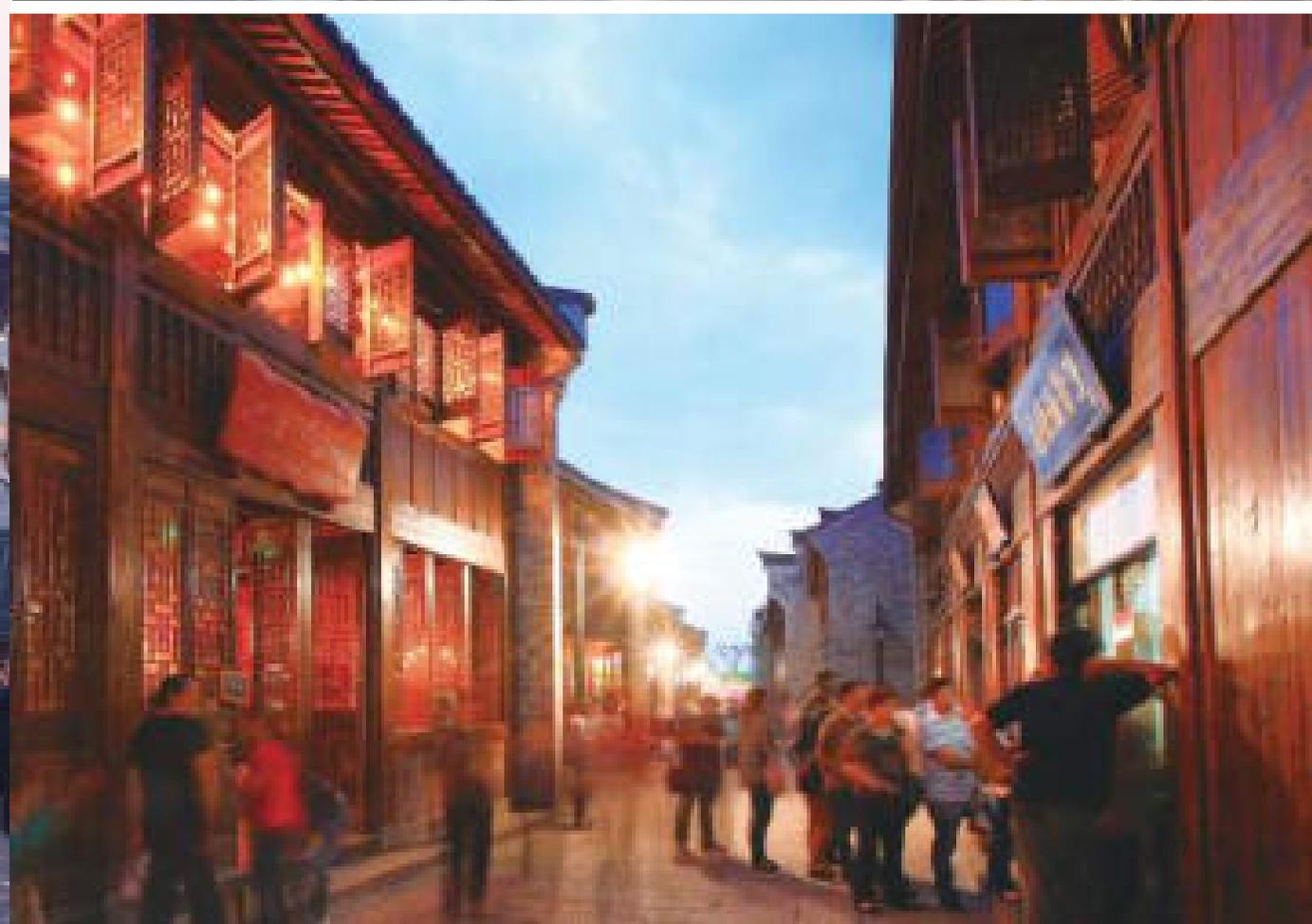




난탕라오지에(南塘老街)

타임머신을 타고 도착한 옛 Ningbo 모습

Ningbo시 남북으로 쪽 뻗어 있는 난탕라오지에는 중국의 옛 모습을 보존하고, 또 재해석하여 현대와 호흡하고 있는 공간으로, 풍부한 문화 자원을 여실 없이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송나라의 유명한 학자인 원섭(袁燮)의 후손들이 이곳에 살았으며, 이 거리 내에 원 씨 가문의 건물이 큰 규모로 보존되어 있다. 그 외에도 옛날에 쓰이던 사당, 학교 등 다양한 건물을 살펴볼 수 있다. 북쪽은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한 상업이 활성화 되어 있어 여러 종류의 기념품샵을 만날 수 있고, 남쪽은 '도시 휴양'을 컨셉으로 많은 볼거리와 먹거리가 있다. 특히 화려한 조명에 별천지처럼 밝아지는 저녁에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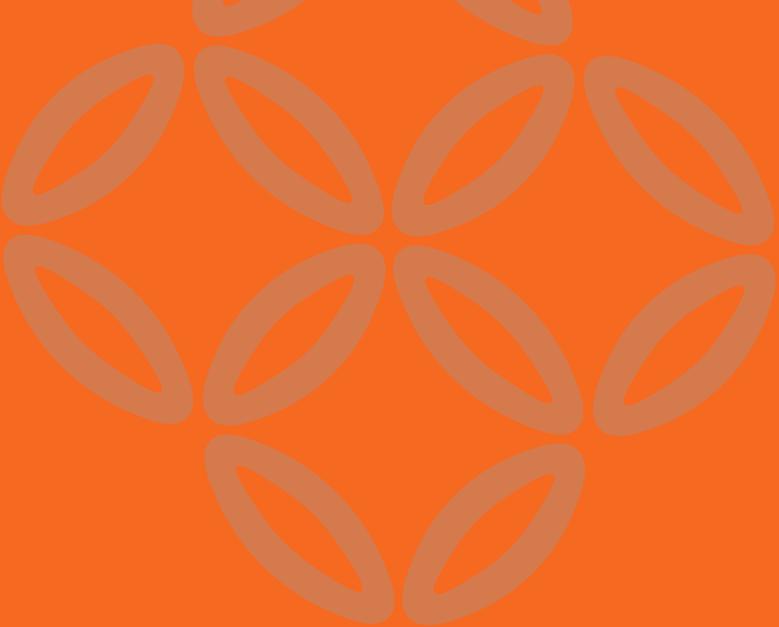


치안통(前童) 옛 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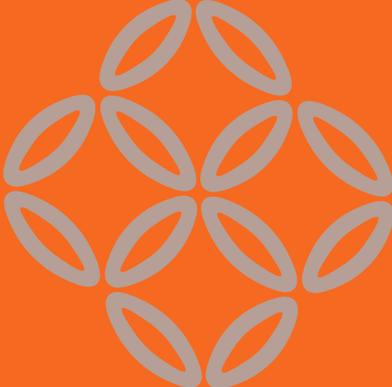
명나라 기풍을 느낄 수 있는 운치 있는 시골 마을

치안통은 76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저장성(浙江省) 닝하이(寧海) 현에 있는 옛 마을이다. ‘강남 최초의 유교마을’, ‘강남의 작은 리지양(驪江)’, ‘살아있는 민속 박물관’으로 불리며 중국 강남 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한 동 씨 거주 지역이다. 명조 건축물 그룹이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으며 벽돌과 검은색 지붕의 장엄한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다. 마을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운치 있고 순박한 시골 풍경을 연상시킨다. 가옥마다 조각이 아름다운 대들보가 있고 새알 모양의 ‘난석(卵石)’을 촘촘하게 박아 놓은 조약돌 길옆으로 팔괘 모양의 맑은 실개천이 흐르고 있어 마치 미로를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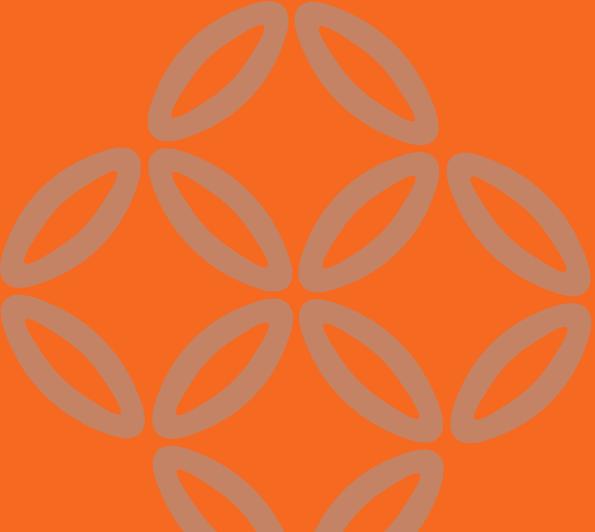




음식으로 만나는 Ningbo



미식가라면 지나칠 수 없는 맛의 고장이 바로 Ningbo다. 저장(浙江) 지역의 바다와 세 개의 강에서 풍부한 생선과 해산물이 나기 때문이다. 또한 비옥한 땅에서 나는 제철 과일과 채소로 만드는 저장차이는 신선하고 맛깔나다. Ningbo의 자연에서 온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요리는 멀리 갈 것도 없이 접시 위에서 Ningbo의 정체성을 확인시켜 준다. 신선한 채소를 곁들인 양쯔강의 생선 요리, 동중국해의 해산물로 만든 화려한 요리들은 Ningbo에 도착한 후 꼭 맛봐야 할 일품요리다. 중국의 베이징과 항저우를 잇는 대운하를 통해 저장차이는 북쪽 지역의 조리 기술을 사용하게 되었다. 남방의 식재료를 활용해 북방의 조리법으로 요리했다는 게 저장차이의 큰 특징 중 하나다.





닝보 탕위안(湯圓)

대륙 최고의 탕위안

닝보 탕위안은 중국 강남의 대표적인 간식이다. 탕위안은 참으로 독특한 맛이 있다. 물엿, 검정깨, 돼지기름, 백설탕, 국화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다. 맛있는 육수에 담겨 향긋하고 달콤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탕위안은 놓칠 수 없는 요리다. 특히 은은하게 퍼지는 국화 향은 음식에 고급스러운 풍미를 더한다. 탕위안은 중국 정월대보름인 '위엔샤오지에(元宵節)'에 즐겨 먹는 명절 음식으로 '위엔샤오(元宵)'라고도 한다. 생김새는 한국의 팔죽에 넣어 먹는 새알과 비슷하지만, 송편처럼 소가 반드시 들어간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검은깨와 설탕 등으로 달콤하게 만든 소이며 팔죽으로 만든 것, 다진 고기로 만든 것 등 지역과 개인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소를 넣어 먹는다.



유바오(油包)

만두피 속에 가득 찬 닝보

유바오는 닝보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우리나라의 만두와 비슷하다. 유바오는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맛은 다양각색이다. 중국을 방문한 한국 사람들이 익숙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 중의 하나가 유바오이다. 중국 현지에서 가서 만두(饅頭)의 한국식 한자를 그대로 직역하여 만터우(馒头)를 주문하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소 없는 찌빵 같은 음식이 나오기 때문이다. 닝보의 유바오는 밀가루를 발효시켜 만든 폭신한 피에 양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당면, 두부, 버섯, 가지, 부추, 배추, 달걀 등의 다양한 재료로 만든 소가 들어 있다. 그 크기에 따라 샤오룽바오(小籠包), 중바오(中包), 다바오(大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껍질은 얇고 속은 포근하다.



닝보 카오차이(烤菜)

다양한 조합, 아삭한 불맛

카오차이는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가정 요리 중 하나로, 채소 구이를 말한다. 보통 구이에 사용하는 채소는 콩나물, 양파, 쪽파 세 가지다. 센 불에서 바로 볶아 아삭한 맛이 살아 있고, 채소뿐 아니라 다른 재료를 넣어 함께 먹어도 맛있다. Ningbo에는 새우나 게 등 수산물이 풍부하여 훨씬 다양한 카오차이를 맛볼 수 있다. 쌀국수와 함께 볶아 내는 태국 음식 팟타이와 맛이 비슷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고 간단한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다.



두부피황어(豆腐皮黄鱼)

놓칠 수 없는 Ningbo의 명물 요리

두부피황어는 우수한 품질의 얇은 두부피에 신선하고 깨끗한 황어 고기를 싸서 튀겨 만든 것으로, 식초와 토마토 소스 등과 함께 즐기면 더욱 맛있다. 이는 백여 년의 역사를 가진 Ningbo 명물 요리 중 하나이다. 두부피 외에도 앞채소, 달걀부침, 밀전병, 꽃잎 등에 여러 소를 넣고 원통이나 타원형으로 돌돌 만 후 찌거나 튀기기도 한다.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 신선한 해산물을 이용한 요리는 부드러운 재료를 위주로 하여 맛은 담백하고 색깔 또한 아름답다.





닝보 삼취(三臭)

냄새는 강하지만, 맛은 향기롭다

닝보의 유명한 삼취 요리는 취동과 취미나리, 취두부(臭豆腐) 세 가지를 가리킨다. 취동은 산기슭이나 하천변과 같은 기름진 땅에서 자라는데 식물 전체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냄새가 고약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구릿대 나무, 중국에서는 냄새 오동이라 불린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종기나 피부병의 약재로도 쓰인다. 취두부는 두부를 소금에 절인 뒤 석회 속에 넣어 보존해 만든 발효 식품이다. 한국에서 청국장을 먹으면 구수하다고 하듯이, 취두부의 썩은 듯 지독하지만 정감 어린 향기가 중국인들에게는 식욕을 자극한다고 한다. 이 요리의 특징은 ‘냄새는 강하지만, 맛은 향기롭다’는 것이다.



닝보 떡

함께 추억을 쌓으며 먹는 음식

닝보에서는 탕위안뿐만 아니라 떡도 매우 특별하다. 닝보 떡은 뽀뽀하지 않고, 이에 달라붙지 않는다. 떡과 돼지갈비를 함께 요리하면, 양념이 맛있게 배어들어 매우 맛있다. 닝보 사람들은 설이 되면 떡을 만들어 먹는 풍습이 있는데 지금까지 백 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요즘은 기계로도 떡을 만들어 내지만 닝보에서는 직접 찼어서 떡을 만든다. 닝보 사람들은 떡을 대부분 볶아서 먹거나 떡을 각종 재료와 함께 국물에 담가서 탕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여기서 탕으로 만들어 먹는 연고탕이 한국의 떡국과 비슷하다. 조금 독특한 떡국으로는 토마토 떡국과 팔 떡국이 있다. 떡을 먹는 것은 '매년 한 단계씩 도약해서 많은 재물을 모으자'라는 의미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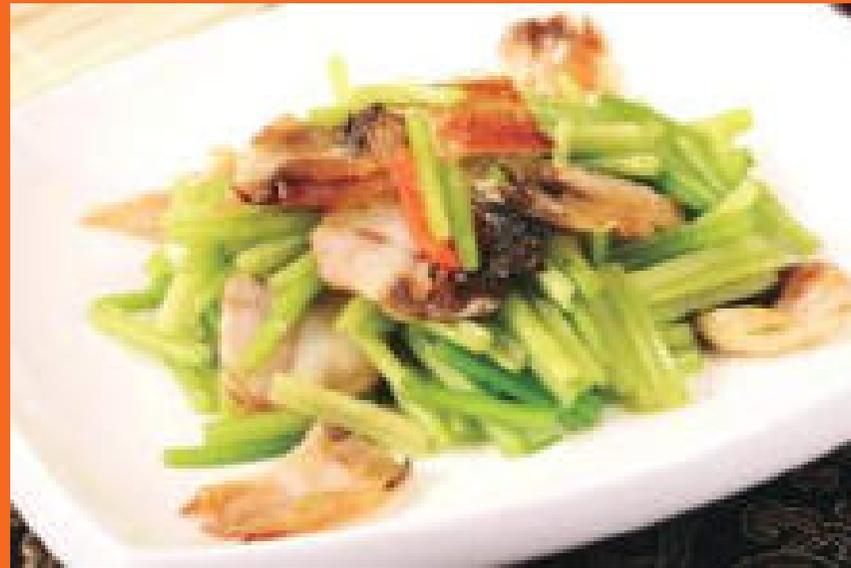




해산물요리

바다와 강으로부터 비롯된
풍부한 해산물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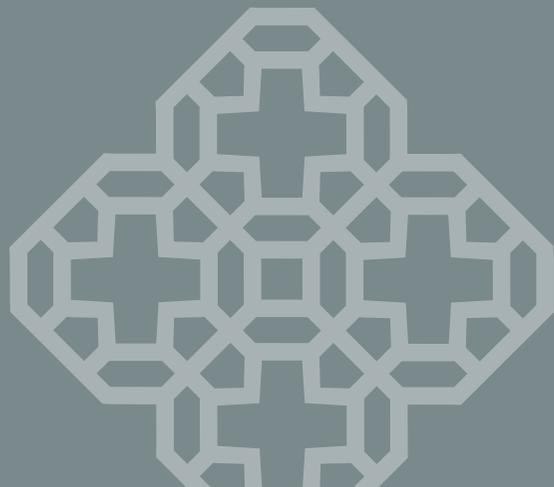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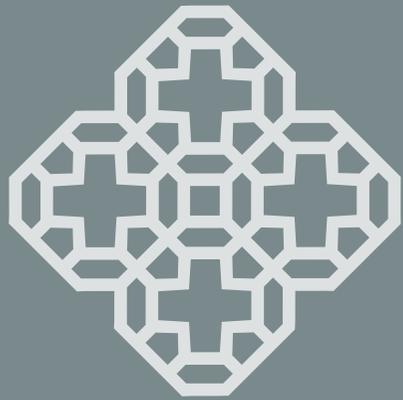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 Ningbo는 바야흐로 해산물 요리의 천국이라 할 수 있다. Ningbo는 바다가 밀접한 터라 19세기부터 개항의 흔적이 곳곳에 역력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해물 요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파기름을 곁들인 꽃게, 소금 후추 새우, 파슬리 해삼 스프, 두부껍질에 싸인 노란 민어, 흰 양배추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 요리가 사람들의 미각을 유혹한다. 이처럼 바다가 가깝다는 이점으로 Ningbo는 해산물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신선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다는 점을 손꼽을 수 있는데, 그리하여 해산물 요리가 예술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청년들의 Ningbo 답사 리얼 후기

2022년은 중국과 한국의 수교 30주년 및 한중 문화 교류의 해였다. 한국과 저장성 문화·관광 교류 강화와 이해 심화를 목적으로, 상하이와 저장성 현지 한국 유학생과 블로거 등 14명을 초청해 5박 6일 일정으로 투어를 진행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일상의 회복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청된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 동안 Ningbo를 대표하는 볼거리, 먹거리, 체험할 거리를 다채롭게 경험했다. Ningbo를 리얼 체험한 청년들의 생동감 넘치는 여행기로 한 발짝 먼저 Ningbo를 살펴보자.





닝보에서 함께 한 모든 순간이 좋았다

저장대학교 김나정

나는 저장성에서 유학 생활 3년 차인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중국 여행을 한 번밖에 못 해봤다. 그런 아쉬움 때문에 이번 학기를 잘 마무리한 다음 방학 동안 중국 여행을 할 계획이었다. 때마침 중앙일보에서 5박 6일의 Ningbo 여행 답사 활동을 할 기회를 주셨다.

첫날,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Ningbo로 출발했다. 여행이 끝난 후 떠올려 보니 Ningbo 여행 중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전통 과자 만들기, 중국 전통 의상 입어 보기, Ningbo 집밥 체험하기, 연극 감상하기 등등, 그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건 '치파오 입어 보기'. 어렸을 때부터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기에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었다.

여행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 이야기다. 아직 중국 음식을 많이 접해 보지 못해 모든 음식이 다 입맛에 맞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접해 보지 못할 음식들을 맛볼 수 있어 좋았고 특히 가지 요리나 버섯 요리, 작은 생선 튀김(椒盐溪坑鱼), 계 요리 등은 다음에 친구들과 Ningbo에 간다면 꼭 소개해 주고 싶을 만큼 맛있었다. 그리고 팔앙금 맛 떡(梁弄大糕)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 과자도 맛볼 수 있었다.

아쉬웠던 점은 날씨가 안 좋아 유람선, 요트 타기 체험을 하지 못한 점이다. 등첸호라는 Ningbo의 명소가 시후(西湖)의 3배 크기라기에 기대했는데 영상으로밖에 보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았다. 폭포, 쓰밍산(四明山), 성양촌, 텐동사, 한링(韩岭) 등등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았다. 아쉽게도 비가 와서 더 아름다운 모습을 담지 못했지만, 한편으론 Ningbo의 가을과 겨울을 모두 볼 수 있어 좋았다. 이른 시간에 하루를 시작하여 조금은 피곤하기도 했지만 제공해 주신 버스에 탑승하여 편하게 쉬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았다.



우리가 머문 숙소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산수군란리조트'에서, 남은 3일은 상그리아 호텔에서 머물렀다. 둘 다 5성급 호텔인 만큼 조식도 맛있고 시설도 좋았으며 야경도 예뻐다.

텐동사에서는 소원을 적어 나무에 걸고 왔다. 앞으로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학업에 전념하고 꼭 이뤄 내리라 다짐했다. 또 Ningbo에서의 경험이 모든 점에서 만족스러웠기에 앞으로 중국 다른 지역 여행도 기대가 되었고 이런 기회가 다시 찾아온다면 꼭 참여하고 싶다.

다만 호화로운 숙소, 좋은 음식 그리고 편리한 교통수단과 가이드님의 전문적인 설명 등은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에서는 쉽지 않을 거 같았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 쓰는 입장에서 아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아끼는 여행일 수밖에 없다. 대학생 할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SNS를 통해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으면 한다. 한국 유학생들은 보통 다중디엔핑(大众点评)나 샤오홍수(小红书) 앱을 통해 여행지를 검색해 보곤 하는데 앞으로 이런 곳에도 많은 정보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겉이 아닌 속을 들여다 본 여행

저장대학교 신석현



첫날은 버스로 이동하여 저장성 명승 마을 중 하나인 성양촌을 방문해 전통 과자를 만들었다. 처음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니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자를 구울 동안 성양촌 구경을 다녔다. 날씨는 그리 좋지 않았으나 분위기는 조용하고 고즈넉했다. 마을 구경을 다 끝내고 난 후 동천호로 돌아가 호수 바로 옆에 있는 한림미술관을 다녀왔다. 미술관의 건물은 마치 하나의 산과 같이 느껴졌고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정원들은 앞에 있는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한림라오지에(韩岭老街)는 해가 지고 거리에 불빛들이 켜지자, 낮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이제껏 내가 봤던 수많은 야경 중에서 손꼽을 수 있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심지어 흐린 날씨여서 평소보다 유난히 더 어두웠지만 그래서 그런지 마을에 밝혀진 노란 조명들이 한껏 잘 어우러져서 더욱 예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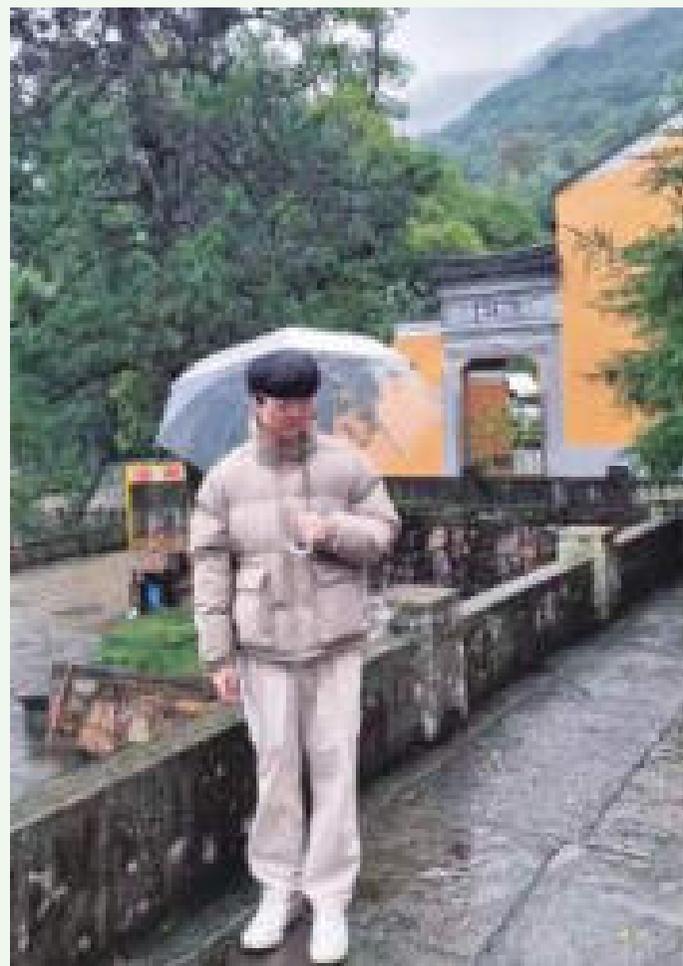
텐동사를 한 바퀴 둘러보고 사찰 요리도 맛보았다. 텐동사를 떠나 시커우(溪口)에 위치한 쉼터우산으로 갔다. 산을 타고 올라가기에는 날씨가 좋지 못하여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다음, 풍경과 폭포를 관람했다. 쉼터우산의 폭포를 보며, '대자연이 이렇게나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다. 쉼터우산을 돌아보고 중국 전통 의상 체험도 해본 다음 응몽리(应梦里) 마을로 갔다. 이곳은 시커우의 역사와 문화를 이용하여 공연 예술로 표현한 대규모 문화 관광 단지다. 현대적이고 독특한 건물들이 방문객의 눈을 행복하게 해 주었다. 응몽리 마을에서 <刺杀001(암살 001)>이라는 공연을 관람하였는데, 내용도 좋았지만 공연 방식이 무척 마음에 들었다. 공연의 처음은 무대에서 시작되지만, 배우와 관객이 서로 같이 호흡하며 배우들의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여운이 크게 남은 공연이었다.

다음 날은 쓰밍산(四明山)에 올랐다. 숲에는 단풍나무들이 곱게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본 모습 중에 단연 최고는, 전망대에서 바라본 닝보의 풍경이었고 이보다 더 멋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조용한 도시의 분위기가 나를 한결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쓰밍산에 있는 민박집 구경을 했다. 산속에 자리하고 있어 자연과 어우러져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 같은 곳이었다. 민박집 옆에 있는 카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냇을 놓고 앉아 쓰밍산을 구경하기도 했다.

닝보박물관에는 옛날 허무두 문화(河姆渡文化)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닝보박물관뿐 아니라 명나라 때 건립된 텐이거도 방문하였는데, 현재는 국가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된 국가 5A 관광 명소라고 했다. 그만큼 텐이거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높아 보존 상태도 상당히 좋았다. 텐이거와 닝보박물관 구경을 한 다음, 와이탄으로 자리를 옮겨 저녁을 먹었다. 마지막 날엔 쓰청(慈城)에 방문하여 그곳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닝보의 전통 떡을 만들어 보는 체험도 하였다.

다음 날은 남송석각유적박물관을 방문해 남송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유물과 조각들을 구경했다. 야외에서는 석상을 비롯하여 절, 종, 석판에 새긴 글 등 당시에 만들어졌던 물품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텐동산에 위치한 텐동사라는 절을 방문했다. 절 내부 모습은 웅장함 그 자체였으며 중앙에 있던 금으로 만들어진 동상의 위엄이 대단하게 느껴졌다.

한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닝보에 대한 여행 글을 검색해 보면, 당일로 잠시 다녀와도 충분한 도시라고 쓴 글이 많아 안타까웠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최고의 여행지임을 장담합니다

저장대학교 이소빈

항저우에서 학교를 다니며 주변 친구들에게 종종 닙보라는 도시에 대해 전해 듣기는 했지만, 닙보를 직접 다녀오기 전까진 거의 무관심했다. 이번 여행 목적지인 닙보가 항저우 바로 옆 도시임에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가게 된 여행이라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닙보에서 며칠을 보내며 가장 크게 와닿았던 것은, 고유문화와 역사를 잘 보존해 온 도시라는 거였다. 성양촌도 항저우에서 보기 드문 마을이었다. 집과 집 사이에 계곡이 있고 마을 건축물 사이사이에서 세월이 녹슬어 가는 모습마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마을을 돌아다니며 마주했던 주민들 모두 친절하게 우리를 대해 주셨다. 속세를 벗어나 온전히 그들만의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사는 순진하고 해맑은 모습을 보며 정이 많고 행복 지수가 높은 마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성양촌에서 버스를 타고 닙보의 필수 관광지인 한링자오지에(韩岭老街)로 이동했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멋진 호수 경치에 무한 감탄을 하며 호수를 따라 걷다 보니 한링미술관이 보였다. 가이드님의 해설로는 이 미술관은 한링의 기와에 영감을 얻어 외관을 기와 형태로 재현해 지었다고 한다. 미술관의 위치는 도로에 있지만 조금 들어가 보면 호수와 정원이 어우러져 그야말로 미술 작품을 보는 느낌이었다.

다음날은 일정에 맞춰 쓰밍산(四明山)으로 출발했다. 평온한 공원 속에 흐르는 강물과 거대한 단풍나무들이 뻗어 있었고, 곳곳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와 나무 사이로 비춰온 햇살이 피부에 닿으며 이 시간이 잠시 그대로 멈췄으면 하는 바람도 들었다. 버스를 타고 가파른 산길을 한참 올라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뷰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에 올랐다. 전망대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밥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했다. 시골 밥상처럼, 농촌 스타일의 큰 접시에 담겨 있는 음식들이 하나둘 올라왔다. 그 중에서 신기했던 음식은 돼지 얼굴을 통째로 튀긴 요리와 미지근하게 만들어 마시는 황주(黄酒)였다. 물론 돼지 머리 요리가 조금 생소해서 많이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경험이었다. 남송석각유적박물관은 이름 그대로 대부분 남송 시대의 유물을 모아 희귀한 조각상이 놓여 있으며, 일부는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각상도 있었다. 해설을 통해 박물관에는 200여 개의 조각상이 있다는 것, 대부분은 남송 사가의 네 재상의 석각묘라는 것, 이는 뛰어난 지위와 권력을 반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박물관 여기저기에 있는 거대한 조각상들은 마치 살아있는 역사와 같았다.

이번 여행에서 모든 일정이 좋았지만, 그중에서도 <刺杀001(암살 001)>이라는 몰입형 극장 공연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공연 방식이 독특하여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들도 모두 함께 참여하게 만드는 연극이었다. 음악, 분위기, 탄탄한 스토리, 배우들의 연기 등 모든 게 완벽했으며 한편의 뮤지컬 공연을 보는 것 같았다. 공연장이 있는 응몽리(应梦里) 마을은 중국 민국 시기의 역사와 문화를 소재로 사이버펑크 스타일을 가미해 새로운 문화 관광 단지를 조성했다고 한다. 5박 6일이라는 시간 동안 매우 만족스러운 여행이었다. 닙보에 와서야 처음 알게 된 것도 참 많았다. 만약 누군가 닙보에 관해 물어본다면 주저하지 않고 추천을 하게 될 것 같다. 소중한 경험과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힐링 도시에서 낯선 즐거움에 젖다

복단대학교 한은진

비가 추적이던 어느 날, 상하이에서 닝보로 가는 기차길에 올랐다. 닝보는 상하이에서 기차로 약 두 시간 정도 떨어진 도시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다는 점에서는 상하이와 유사하지만, 자연 경관이 한층 잘 보존되어 있어 도시와 자연을 함께 여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도시다. 11월의 닝보는 조금 늦게 시작된 나뭇잎의 옷 갈아입기가 한창이었다. 쓰밍산 올라가는 길에 보이는 계단식 논은 계단의 벽면에 알록달록 그림을 그려 놓아 심심할 수도 있는 풍경에 숨을 불어넣었다. 쓰밍산 근처에서 우리는 민박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중국의 민박집 체험은 농지아러(农家乐)라고 하는데, 산에서 나는 각종 음식을 먹어 볼 수 있었다.

남송석각유적박물관은 이름 그대로 남송 시대에 만들어진 석각들을 모아 만든 박물관으로, 특별하고 희귀한 조각상들이 많이 있다. 특히 여러 동물과 장군들을 조각한 작품이 많았는데 실제로 보면 그 크기와 위엄에 압도된다. 작품 중에는 천 년 이상 된 작품들도 있었는데 갑옷 문양이나 표징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그 시절 중국인들의 예술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다.

텐동사는 닝보에서 유명한 절로 일단 규모가 엄청났다. 대 전 앞에는 1,200년의 역사를 가진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중국인들은 이곳에 빨간 리본을 달아 소원을 적는 풍습이 있다고 했다. 나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었다.

이곳에는 네다섯 개가 되는 폭포가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엄청난 크기의 폭포를 구경하게 된다. 이 폭포가 가장 유명한 천장암폭포다. 한국에는 많이 안 알려졌지만, 닝보 출신의 장제스가 이곳에 별장을 세운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 산과 강 그리고 폭포까지 말 그대로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진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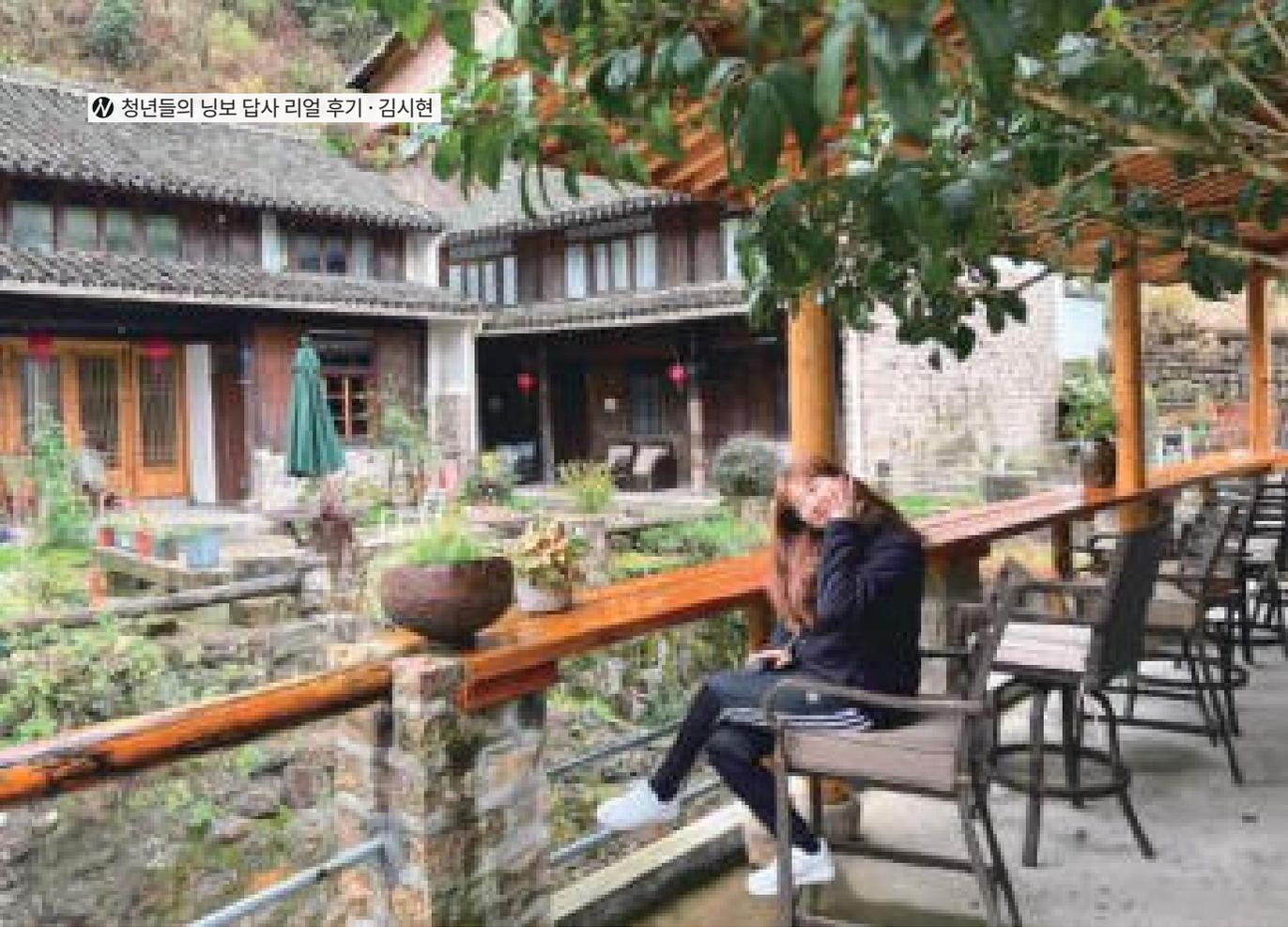
자연만 볼 수 있는 닝보라고 생각하면 오산! 닝보는 또 다른 즐거움이 가득한 곳이다. 응몽리는 상하이의 영시낙원(影视乐园)처럼 촬영 세트장 풍으로 꾸며 놓은 곳으로 우리나라로 치자면 개화기 시절의 중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거리의 풍경도 그 시절의 느낌이 가득하고, 근처 체험하는 곳에서 치파오를 입어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곳에

서, <刺杀001(암살 001)>이라는 특별한 연극도 관람했다. 한국어 자막이 없어서 100퍼센트 이해 못한 것이 아쉬울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다. 관객들은 연극의 내용에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게 되는데 특히 배우와 관객의 경계가 어디인지 알 수 없을 만큼, 배우들이 바로 옆에서 대사하거나 연기를 한다. 관객과 배우들의 거리가 가까워서 몰입감이 엄청났다. 한국에서는 보지 못한 볼거리여서 친구가 간다고 하면 꼭 추천해 주고 싶은 공연이다.

텐이거는 역대 중국 최고의 개인 장서각으로, 책을 보관하기 위한 기술력이 담긴 곳이었다. 예술적 가치가 있는 책 30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으며 저동(浙东) 지역 문화의 중심지가 되던 곳이라고 한다. 정원이 예뻐고, 중국의 옛사람들이 어떻게 책을 보관하는지 볼 수 있는 곳이었다. 닝보박물관은 배 모양으로 지어진 엄청난 규모의 박물관으로 닝보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닝보에 대한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쓰청 구씨엔청은 유가 문화가 짙은 곳으로 유명한 학자, 신하, 거상 등을 다수 배출한 곳이다. 특히 당시 유적의 일부를 발굴했던 곳 그대로를 전시해 놓아 신기했다. 가이드의 설명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으나 역사가 깊은 곳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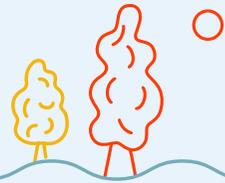
중국인들에게 힐링 도시라고 불리는 닝보에서의 5박 6일에 대한 기록을 짧게 남겨 보았다.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알차게 여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가족과 다시 와 보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

저장대학교 김시현



일찍이 닝보시는 한국에서의 관광 목적 여행객이 가장 많은 관광 시장 중의 하나였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닝보시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내포된 역사 문화를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에게 홍보하기 위해 중앙일보 주관으로 청년 기자들을 모집해 ‘닝보시 문화 체험과 디스커버리 투어’를 진행했다. 예정된 5박 6일 동안, 청년기자단은 닝보시의 각 구역과 여러 가지 건축 문화, 역사 문화, 무형 문화유산, 닝보 음식 문화를 현지 가이드의 동행과 소개로 더욱 생생하고 자세하게 체험하고 여행할 수 있었다. 닝보시는 산, 바다, 호수, 강이 모두 공존하는 친환경적인 도시이다. 또한, 6개의 구(区)와 2개의 현(县)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날에는 닝보시 동남부 인저우구(鄞州区)에 위치한 저장성에서 가장 큰 천연호수 동첸호(东钱湖)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위치한 성양촌(城阳村)에서 첫 번째 일정을 소화했다. 원래 성양촌의 이름은 첸자오촌(陈家岙村)으로, 천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나 점점 양씨 성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양촌이라고 명칭을 바꾸었다. 마을 곳곳엔 역사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이곳에서는 치엔청빙(千层饼)이라는 빵을 직접 만드는 체험을 해보았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 빵은 닝보의 특산품이라고 했다. 한 지역의 특산품을 먹어 보기만 했지, 직접 내 손으로 만들어 본 경험은 처음이라 더욱 기억에 남았다. 이후에는 한링라오지에(韩岭老街)를 둘러봤다. 예전에는 한링성이라 불린 이곳은 천여 년의 긴 역사를 가진 곳이다. 밤이 되니 거리에 뻗어 있는 물길에 들어온 조명이 한링 옛 거리의 야경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한링라오지에는 문화 전시, 민

속 풍토, 특색 음식과 장터, 고유 역사 탐방 등을 복원하여 만든 곳으로 중국 각 지역을 여행하면서 봐 왔던 다른 전통 고성과는 다른 세련되고 활기가 넘치는 곳이었다. 이곳 맞은편엔 닝보 한림미술관이 위치해 있다.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지만, 노을이 지는 시간대에 호수 앞에 자리하고 있는 산 모양의 외관을 보며 모두가 연신 감탄했다. 그 풍경은 돈을 내고 보라고 해도 볼 것 같은 장관이었다.

두 번째 날에는 닝보시 위야오(余姚)에 위치한 쓰밍산(四明山) 삼림공원, 쓰밍후(四明湖), 쓰밍산진(四明山镇)을 여행했다.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는 가이드분께서 미리 쓰밍산과 쓰밍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다. 쓰밍산은 종이 얹어져 있는 모양 같다고 해서 금중산(金钟山)이라고도 불린다. 쓰밍후 주변에는 단풍이 물든 나무들이 뿔뿔하게 서 있었다. 그다음 행선지는 쓰밍산 삼림공원이었다. 고불고불한 길을 한참 동안 버스로 올라가다 보니 귀가 먹먹해져 해발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망대에 오르기 전 창밖으로 본 풍경엔 계단 모양의 유채꽃밭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가을이라 유채꽃은 보지 못했다. 쓰밍산은 전 지역에 생태 경관이 분포된 삼림으로 산, 계곡, 바위 등의 삼림자원이 풍부하고 생태 환경이 우수하여 많은 사람에게 ‘천연 공기청정기’라 불린다고 한다. 다시 한참을 달려 쓰밍산 전망대까지 오르니,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의 쓰밍산이 한눈에 들어왔다. 쓰밍산은 중국 항일전쟁과 해방전쟁 시기에 중국의 혁명사업에 큰 공헌을 한 중국 19개 혁명 근거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다.

쓰밍산을 거쳐 쓰밍산진의 게스트하우스 카페에 들러 다과 시간을 가졌는데 그곳에 수령주렁 달린 감나무들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닝보시 위야오의 특산물 중 하나가 감이라고 했다. 이곳의 홍시는 감을 따서 홍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홍시로 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따다고 했다. 저녁에는 다시 동첸호로 돌아가 호수와 마주하고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밝은 달이 떠 있는 밤에 잔잔한 동첸호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세 번째 날 오전에는 닝보시와 동첸호를 홍보하는 영상물들을 감상하고 지난 이틀 동안의 여행에서 느낀 점을 함께 나누었다. 그 후 동첸호 남송석각유적박물관에 방문해 남송 시대의 역사와 그 시대의 주요 인물들, 각종 석각에 대해 배웠다. 송대의 커다란 유물들을 모아둔 이곳에서 희귀한 조각상들을 많이 보았다. 다양한 형체, 생동한 표정을 가진 가지각색의 말 석각, 무릎 꿇은 양 석각 등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호랑이 석각이다. 남송 시대 사람들

은 호랑이를 본 적이 없어 고양이를 보고 상상력을 더해 호랑이를 조각했다고 한다.

네 번째 날은 닝보시 인저우구(鄞州区)에 위치하고 있는 텐동사(天童寺), 평화시(奉化市) 시커우진(溪口镇)에 위치한 웨더우산(雪窦山)의 묘고대(妙高台), 천장암폭포(千丈岩瀑布)를 둘러보고 치파오(旗袍) 체험을 했으며, 저녁에는 응몽리경구(应梦里景区)에서 특별한 연극을 관람했다. 텐동사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찰로 국가급 삼림공원 속에 숨어 있다. 텐동사에서는 빨간 리본에 소원과 염원을 적어 나무에 걸 수 있는데 이미 빼곡하게 달린 리본들을 보며 괜히 몽글한 기분이 들었다. 비가 오는 절은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 주었고, 법당 안을 가득 채운 불상들이 웅장한 기운을 주었다. 오후에는 평화시 시커우로 이동하여 ‘폭포산’이라고도 불렸던 웨더우산을 여행했다. 원래 일정은 웨더우산 등산이었지만 며칠간 계속되는 빗방울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다른 관광 코스로 묘고대에 가게 됐다. 묘고대는 장제스의 개인 별장 앞에 있는 전망대로 장제스 부인이 자주 이곳 바위에 앉아 산 경치를 구경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타고 한참을 올라가 마주한 천장암폭포, 살면서 적지 않은 지역을 여행했지만 이토록 규모가 크고 낙차 폭이 높은 폭포는 처음 마주한 것 같았다. 가까이에서 느껴 본 폭포는 사람 한 명쯤은 거뜬히 집어삼킬 것만 같은 기세로 쏟아져 내렸다. 산 정상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폭포수의 길이가 186미터에 달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노천 미륵대불상을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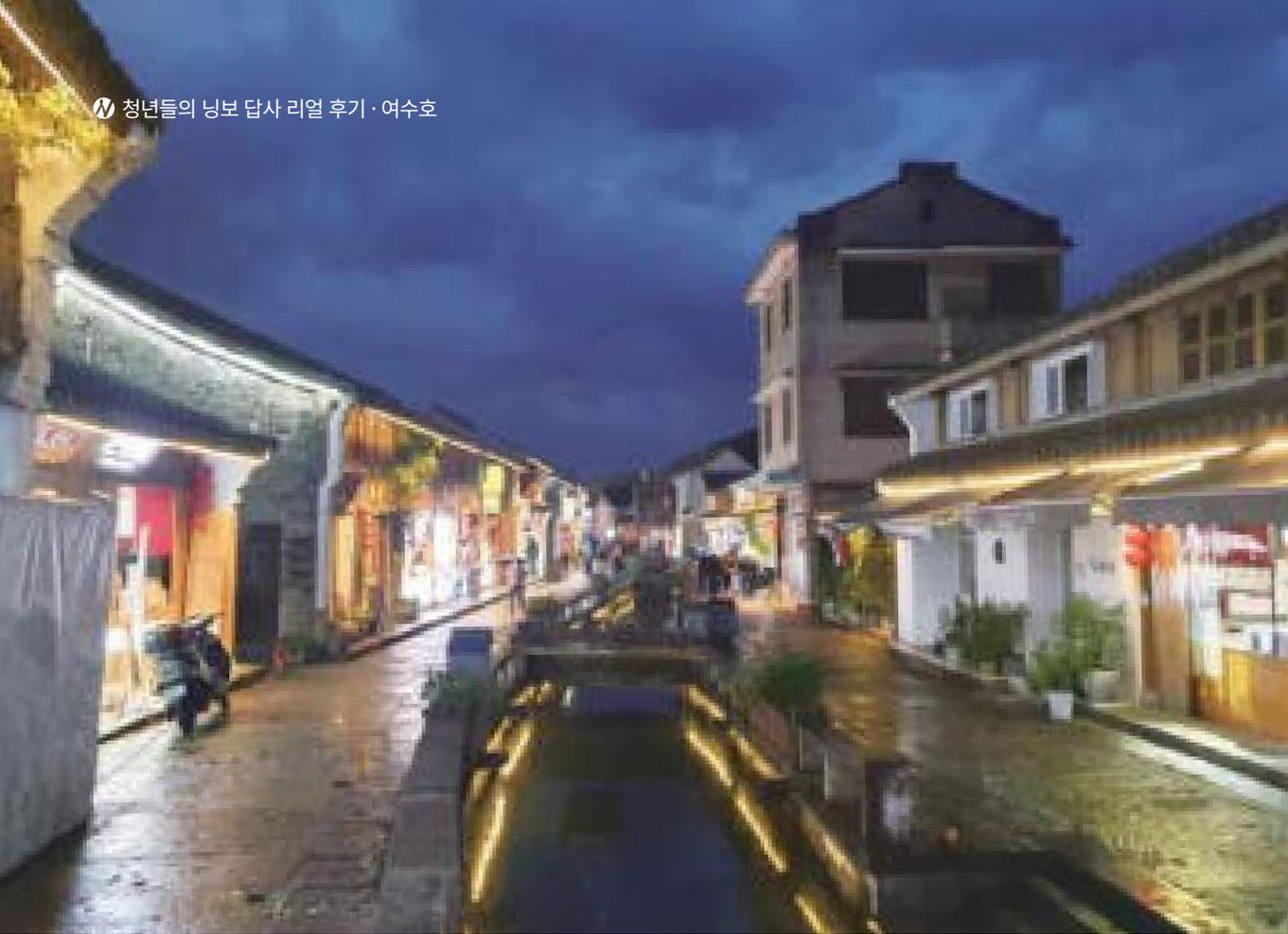
▲ 저장대학교 김시현

까이서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스로 이동하는 중에 멀리서나마 불상을 보게 되었는데 다음번 닝보에 다시 방문하게 되면 56.74미터의 거대한 노천 미륵대불상을 직접 마주하고 싶다. 이렇게 웅장해진 마음을 붙잡고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민국 시대의 모던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한 호텔이었다. 그곳에서 생애 첫 번째 치파오를 경험했다. 적지 않은 시간을 중국 유학 생활로 보냈는데 단 한 번도 치파오를 입어 볼 기회가 없었다. 평소에 옛날 홍콩 영화를 즐겨봐 치파오에 대한 로망이 있기도 했고 치파오가 주는 그 시대의 감성과, 한국의 전통 의상 한복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 청년기자단 모두가 중국 민국 시대의 의상을 입고 단체 사진을 찍으니, 마치 그 시대에 우리가 존재했던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지막 코스인 응몽리(应梦里)에서는 우리를 위해 특별한 연극이 준비되어 있었다. <刺杀001(암살 001)>이라는 제목의 연극이었는데, 어디서도 접해 보지 못한 새로운 방식이었다. 총 4개의 세트장을 관객이 옮겨 다니며 관람하는 연극이라니! 심지어 중국과

한국 양국이 공통점으로 뽑는 일제강점기의 항일 관련 내용이었다. 마치 실제 상황처럼, 공감도나 몰입도를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연극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는 청년 기자들이 계속해서 연극의 내용과 진행 방식을 토론했으며 그 여운과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 다섯 번째 날에는 닝보 하이수구(海曙区)에 위치한 난탕라오지에(南塘老街)를 방문했다. 이곳은 닝보의 문화 보존과 무형 문화유산의 계승을 위한 용도로 '닝보 전통문화의 창구'를 주제로 하여 500여 미터의 강남 전통 거리를 보존 및 재현해 놓았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이번 여행의 교류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간 닝보의 이곳저곳을 방문하고 여행하며 직접 체험하고 느꼈던 점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만약 패키지여행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보충해야 할 만한 점들도 솔직하게 말씀드렸다. 회의가 끝나고 이번 여행에서 가장 기대가 컸던 텐이거(天一阁)를 방문했다. 텐이거는 위예후(月湖) 서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명나라 40년(1561년) 당시 병부우시랑을 맡고 있던 판친이 처음 지은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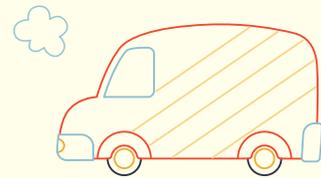
관으로 현재 30만 권에 이르는 도서가 소장되어 있다. 또한 텐이거는 2급 국가중점문물보호단위의 하나이며 국가AAAAA급 관광지로서 중국의 가장 높은 단위의 관광지 중 하나이다. 텐이거 안에 있는 고택, 누각, 정자 등 중국 전통 가옥과 정원 그리고 호수가 어우러져 한 폭의 절경을 이루고 있다. 이곳 안에 있는 마장기원지진열관에도 가보았는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마장을 테마로 하는 전문 진열관이라고 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는 마장 패위의 그림들이 재미있었다. 그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마장 패 또한 진열되어 있어 더욱 흥미로웠다. 그다음은 닝보박물관을 관람했다. 전문 가이드분께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닝보 허무두 역사 문화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진귀한 청동기, 도자기, 죽각, 옥기, 서화, 금은기, 민속 유물 등을 설명해 주셔서 한층 더 깊이 그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지난 일정에서 듣고 보고 배운 역사 유물들의 원본을 실제로 보니 그 역사가 너무도 크게 와닿았다. 한국의 역사를 먼저 배웠던 우리 청년 기자들이라 닝보박물관에서 중국의 관점

으로 배운 고대 역사는 마치 갈라져 있던 세계관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었다. 특히 고려청자의 원본과 각종 고려, 조선의 유물 원본을 접했을 때 그 감정은 말로 형용하기 힘들 정도이다. 마지막 날 일정은 쓰칭(慈城) 역사 문화전시와 공모예 방문했다. 쓰칭 구씨엔칭(古县城) 역사 문화전시에서는 허무두 시대부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5박 6일의 여행 동안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건 닝보에서의 특색 넘치는 산해진미가 아닐까 싶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라 그런지 다양하게 접한 생선 요리와 게 요리, 각종 떡을 이용해 만든 간식들이 다시 닝보를 여행하고 싶게 만드는 요소가 아닐까 싶다. 혼자 여행 왔다면 절대 온전히 느끼지 못했을 이번 여행지 닝보, 여행 내내 가족들, 특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하고 싶은 최고의 여행지라 생각한다. 최근 중국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3년간 끊겼던 해외 관광객의 발걸음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른 시일 내에 중국 관광이 다시 활발해져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닝보의 매력에 푹 빠지기를 기대한다.



우중산책: “海丝古港 微笑宁波”

복단대학교 여수호



닝보는 저장성 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저장성의 성도 항저우와도 가깝다. 특히 상하이와 바다를 끼고 마주하고 있으며, 만약 고속철도를 이용한다면 약 2시간이면 도착할 만큼, 비록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나름 상하이의 근교라고도 할 수 있다. 필자는 상하이에서 약 2년 가까이 거주하고 있으며, 닝보에 관해 이름만 겨우 들어 봤을 뿐, 짧게라도 방문해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이유를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첫째로는 여행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고, 둘째는 닝보가 상하이와 가깝기 때문일 것이다. 첫 번째 이유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들었을 때 다소 의아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까울수록 자주 접근할 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상하이와 닝보가 가까워 기후도 공유하고, 또 두

도시 모두 연해(沿海) 도시인 만큼, 비록 도시 규모의 차이는 있더라도 분위기는 비슷할 것이라 생각해 오히려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닝보 여행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항저우와 쑤저우 이외의 한가지 선택지를 더 추가해보고자 함이다. 우리가 여행하는 5박 6일 동안 닝보는 비로 촉촉이 젖었다. 그럼에도 닝보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더욱 운치 있게 느껴졌다. 우산에 부딪히는 빗방울 소리와 낮게 깔린 운무는 분명 인상적인 풍경이었고, 그곳을 고요히 걷고 있노라면 복잡했던 머릿속이 차분히 정리되며 자연 속 일부가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텐동사(天童寺)가 이러한 면에서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텐동사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고찰로, 규모도 크고 불교문화도 잘



복단대학교 여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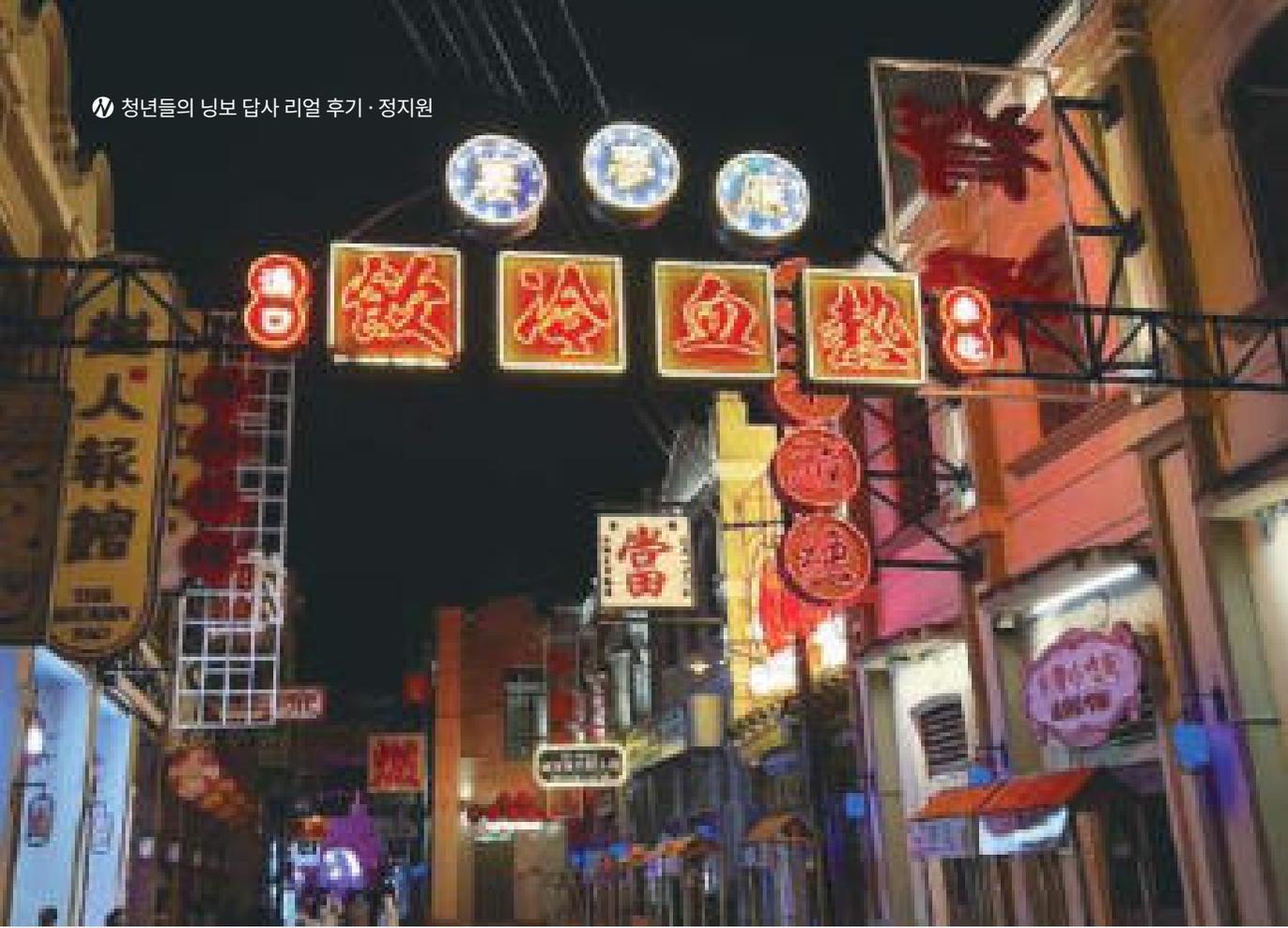
보존되어 있다. 입구에서 불전까지 약 20분 정도 걸어 올라가며 주변 자연 경관을 즐기고, 법당을 비롯한 시설들을 관람한 다음, 사찰 음식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필자는 사찰 기와의 매력에 빠졌다. 이는 한국의 기와와는 다른 품격을 가지고 있으며 자잘한 기와들이 포개져 이끼와 함께 어우러진 모습으로 그 세월을 체감할 수 있다. 빗물에 젖은 기와들은 그 자연의 색채가 더욱 발현되어 관람객의 시선을 잡아끌기 충분했다. 텐동사를 떠나기 전, 사찰 내 고목에 소원을 적은 빨간 끈을 묶으며, 소중한 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다. 한국에서 사찰을 방문할 때 팔찌나 염주 등 기념품을 사곤 하는데, 필자는 불교문화와 관련된 작은 기념품을 사는 것 또한 그 문화를 체험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텐동사에서도 이러한 목적의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법당 내에서 파는 물품들이 비교적 고가라 구매하지는 못했다. 비록 물건으로써 추억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오히려 단 몇 천 원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었던 즐거운 활동이었다. Ningbo를 드러내는

첫 번째 색채가 불교문화였다면, 두 번째 색채는 자연 경관이다. 그중 쓰밍산(四明山)은 Ningbo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필자는 쓰밍산 자락에 있는 시커우(溪口) 관광지를 방문했다. 이곳에서 과거 장제스가 산하를 내려다보았던 묘고대(妙高台)에 올라 그의 흔적을 밟아 보았고, 또 케이블카를 타면서 웅장한 폭포를 가까이 느껴볼 수 있었다. 폭포를 온몸으로 맞으며 자연의 기운을 받고, 또 함께 간 일행들과 폭포를 활용한 사진을 남겼는데, 그 여운이 오래도록 따라다닐 듯하다. 이와 함께 동첸호(东钱湖)는 Ningbo를 대표하는 호수라고 할 수 있다. 동첸호와 그 주변 지역은 리조트가 있어 가족 단위 관람객도 방문하기 편리하고, 특히 자전거나 배를 타며 동첸호를 감상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레저 활동 또한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가 머무는 숙소 또한 이 지역에 있었지만, 기상 여건이 좋지 않아 레저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 동첸호 일대 한링라오 지에(韩岭老街)를 거닐었는데, 작은 개천 주변에 조성된 아기자기한 상가들은 거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저녁이 되자 조명이 들어오면서 그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한결 고조시켰다. 특히 동첸호 일대에는 지역의 맛을 잘 구현해 주는 유명한 식당들이 여럿 위치해 있다. Ningbo의 맛은 강남 요리로 설명되는데, 생선 요리를 포함하는 여러 해산물 요리는 특히나 향긋하고 달콤했다. 또한 동첸호에서 약간 떨어진 성양촌(城阳村)을 방문하여, 전통 간식 만들기를 체험했다. 이 전통 간식은, 우선 제조 방식이 반죽을 여러 번 겹치고 퍼기를 반복하며 쫄득한 식감을 잘 구현해 낸 빵과 같은 것인데, 맛은 약간 심심하지만 씹을수록 고소해지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관람객들을 위한 작은 카페도 있고 마을의 전통을 전시하며, 또 여름이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튜브와 보트가 놓여 있는 등, 마을 스스로가 현대에 맞게 점차 발전하고 있는 모습 또한 볼 수 있었다. Ningbo의 세 번째 색채는 오랜 역사라 할 수 있다. Ningbo는 과거에 '밍저우(明州)'라고 불렸으나, 명(明) 왕조가 들어서자, 현재의 Ningbo라는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Ningbo의 발전 과정에서, 쓰청 구씨엔청(慈城 古县城)은 과거의 거리, 골목, 관청 등의 다양한 시설들이 잘 보존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단순히 건물 몇 채나 성곽만 보존된 수준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시간을 거슬러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관광 목적으로 보존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활을 영유하고 있다. 즉 사장된 문화로서 계승되는 것이 아닌, 현재에도 그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골목마다 작은 화물차가 다니고 질서 체계도 적용되어 있는 등, 그 자체에서 주는 감동과 아우라가 존재한다. 이곳에서 공묘(孔庙)와 옛 관청을 구경하고, 이 지역의 유명한 간식인 떡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떡은 한국의 감자떡처럼 식감이 매우 쫄득했고, 또 함께 곁들여 먹을 수 있는 야채소와 찍어 먹을 수 있는 콩가루는 심심한 맛에 변칙을 주어 재미있었다. Ningbo 시내에도 몇 가지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특히 한국과의 역사적인 상징을 가진 장소로 과거 고려시대 사신들이 머물던 고려사관(高麗使館)이 있다. 또한 텐이거(天一閣)는 아시아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개인 장서각(藏書閣)으로, 과거 고서를 보관하던 방법을 전시하고 있다. 한편 이곳에서는 마작(麻将)의 기원지로서 초기에 사용되던 마작을 소장 및 진열하고 있다. 과거 관료 및 부호들의 가택이었던 만큼, 이곳을 거닐며 아름다운 석조물, 연못 등을 구경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특히 마작은 비록 그 게임의 규칙은 모르더라도 보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생기고, 그 디

자인 자체에서 오는 감탄도 있다. 만약 Ningbo와 관련된 역사와 발전을 더 공부하고 싶다면, Ningbo박물관을 방문하는 것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응몽리(应梦里)에 구성된 민국(民国) 시기 세트장이다. 실제 이곳이 영화나 드라마를 위해 만들어진 관광지는 아니지만, 이곳에 조성된 민국 시기의 품격을 지닌 간판과 작은 상점들은 기념 사진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의 발걸음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하다. 비록 필자가 방문한 시기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여행객은커녕 간판의 볼도 다 들어와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곳이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면 너무나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조명이 들어오는 야간에 방문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라 생각되며, 관광지 내 소소한 놀이 시설도 함께 갖추고 있어 단순히 사진 스맛 에 그치지 않고 작은 규모의 테마파크로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할 수 있었다. 주제는 과거 민국 시기 일제에 쫓겨 달아나는 항일 투사들의 고난이다. 주제를 보고 느꼈겠지만, 신파와 프로파간다적 요소가 없다고 부인할 수는 없다. 특히 한국인에게도 그러한 감동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럼에도 '독립'과 관련된 역사적 경험은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고 있는 아픔이고, 이에 한국인에게도 주는 울림이 있다. 그러나 이 연극을 추천하는 '진짜' 이유는, 해당 연극의 연출이 매우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에서 필자는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문화생활에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해당 연극은 분명 독특한 면모가 있었다. 관객이 연극의 한 장면에 직접 들어가 배우들과 함께 움직이는 등, 관람객들의 몰입을 끌어낸다. 외국에서 문화 체험을 하는 것도 여행의 한 모미인 만큼, 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연극을 선택하길 바란다. Ningbo의 이 네 가지 색채는 상하이에 거주하는 필자에게 매우 귀중한 체험이었다. 사실, 등산이나 사찰 방문, 고성(古城) 탐사 등의 활동에 취미가 있지는 않다. 하지만 문득 이와 같은 체험을 해 보고 싶을 때가 가끔 있다. 상하이에는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장소가 적고, 굳이 이러한 활동을 위해 멀리 떠나기도 번거롭다. 그럴 때 Ningbo는 이러한 방면의 갈증을 오랜만에 해소해 준, 고마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분명히 Ningbo는 상하이와는 다른 새로운 체험과 분위기를 제공하고, 이는 서로의 부족한 매력을 보완함으로써, 윈-윈의 효과를 창출해 낸다. 따라서 상하이를 방문해 보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있다면, 이러한 방면에서 Ningbo를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유구한 역사 유적부터 옛 소촌의 고전적 풍취까지

저장대학교 정지원

이른 아침 Ningbo행 열차에 올랐다. 잠깐 눈을 붙였다가 뜨니 열차는 야오강 위를 건너고 있었고, 곧이어 Ningbo역에 도착했다. 멀리서 깃발을 들고 온 가이드를 따라 버스로 이동하는데, ‘계’ 모양을 닮지 않았냐는 가이드 말에 그제야 뒤를 돌아 역전을 마주 봤다. 항구 도시답게 해산물인 ‘계’를 상징으로 한 역전 외관하며, 얼핏 보면 물결 같기도 한 이 곡선 설계는 파도를 뜻하는 Ningbo의 ‘보(波)’가 생각나기도 했다. 버스는 한참을 달려 동첸호(东钱湖)를 지나 숙소에 도착했다. 산수군란이라는 이름처럼, 도시 외곽에 자리 잡아 동첸호를 둘러싼 Ningbo의 산수경관이 잘 보이는 숙소였다.

점심 식사 후 인저우구(鄞州区)의 성양촌(城阳村) 관광에 나섰다. 비 오는 날씨에도 텐트를 치고 낚시를 하는 젊

은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마을 곳곳에는 낡은 집을 개조하여 운영 중인 감성 카페들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오래된 마을이지만 온라인상 유명 인사를 뜻하는 왕홍(网红)을 본딴 ‘왕홍촌(网红村)’으로 불리며, 중국 젊은이들의 캠핑 성지, 힐링 스팟으로 재조명받고 있다고 한다. 마을 한 켠에는 전통 수공예품과 아이들이 쌀알로 직접 만든 예술품 및 골동품들을 모아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마을의 수공예품에 대해 열심히 설명해 주시는 마을 어르신들의 사투리는 중국인들도 알아듣기 어렵다는 Ningbo화(宁波话)로, 실제로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마을을 아끼는 마음은 느낄 수 있었다. Ningbo 전통 과자인 치엔청빙(千层饼)을 제작해 보는 체험 시간도 가졌다. 굵고 나니 이름처럼 1,000층의 레이어가 있는,

패스츄리처럼 바삭한 식감을 자랑한다. 전통 과자뿐만 아니라 마을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 보는 일일 체험도 다양하다고 하니 젊은 층에 사랑받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이튿날 아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핵산 검사를 마친 후 곧장 목적지로 향했다. Ningbo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자리한 수상림(水杉林)의 풍경은 한 폭의 수채화 같다. 유럽에서나 볼 법한 이런 풍경에는 호수를 끼고 높게 자란 침엽수들이 한뼘 한다. 실제로 가까이 보면 나무 절반은 물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신비로운 광경을 볼 수 있다. 날씨는 추운 겨울이었지만 아열대 기후 탓인지 호수 주변 나무들의 색깔이 마치 늦가을 같았다. 단풍 구경 명소인 수상림은 띠아호홍(吊红), 홍시로도 유명하다. 실제 수상림의 단풍 구경 적기는 11월 말부터 12월 초인데, 시기를 잘 맞추어 간 덕에 아주 달게 익은 홍시를 맛볼 수 있었다. 각종 과일과 함께 단풍 구경을 마치고 버스로 돌아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얼마 못 가 엄청난 차멀미와 함께 다음 목적지가 산임을 깨달았다. 쓰밍후 옆의 쓰밍산(四明山)이었다. 쓰밍산은 최고 해발 1,000미터 이상으로 지리산에 버금가는 크기의 산이다.

점심으로는 쓰밍산 특색이 배어 있는 음식을 먹었다. 전문 식당이 아닌 가정집이었는데, 집 규모가 우리나라 중갓집 정도 크기로 꽤 컸다. 낙후된 시골집을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Ningbo는 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부유한 도시라서 시골집도 규모가 크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Ningbo는 상해보다도 먼저 개항하여 무역 중심지로 이름을 떨친 Ningbo방(宁波帮)들의 도시이다. 식사 후 차를 마실 줄 알았건만, 인근에 카페가 있다고 해 산속에서의 느긋한 커피 타임을 가졌다. 쓰밍산 경치는 중국의 젊은 세대도 매료시켰나 보다. 최근 많은 청년들의 힐링 스팟이자 귀촌 명소로 사랑받고 있다. 대부분 이렇게 고옥을 개조해 카페 겸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은 여행객들이 대형 체인 호텔보다도 고급스러운 독채 민박을 선호한다 하니, 한국과 같이 중국도 민박 열풍이 불고 있는 듯하다.

시안에는 병마용이 있다면, Ningbo에는 남송석각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남송석각유적박물관은 동첸호 동부에 자리 잡고 있다. 박물관의 석각은 남송 시대를 중심으로 명·청 시기의 작품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200여 점의 석각이 대부분 남송 사가(史家) 중 4명 재상의 묘비 석각으로, 사

가의 지위와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곳의 석각은 섬세하고 정밀한 표현, 다양한 몸짓과 생동감 있는 표정으로 유명하다. 문인부터 무인, 호랑이, 말, 양까지 각각 충(忠), 용(勇), 절(节), 의(义), 효(孝)를 대표해 당시의 역사적 인문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잘 보이지 않는 곳까지 디테일하게 조각된 모습을 보니, 신발 바닥의 무늬까지 묘사한 병마용이 오마주 되며 이곳의 역사적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였다. 조각상들은 실제 250센티미터 정도로 시안의 병마용보다 크기도 훨씬 커 더 웅장해 보이고 비 내리는 날씨가 더해서 음산하기까지 했다.

텐동사(天童寺)는 1700년 역사의 오래된 고찰이다. 중국 내에서도 원형이 잘 보존된 몇 안 되는 사찰로 현재 저장성 중점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찰에 들어서기까지 오랜 시간 걸어야 해서, 실로 첩첩산중에 둘러싸여 있음을 실감케 했다. 의흥이란 스님이 세운 인적 드문 절에 갑자기 한 동자가 찾아와 스님을 조용히 시봉했는데, 어느날 동자가 ‘나는 하늘의 옥황상제가 보낸 태백금성(太白金星)이다. 이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이니 그만 돌아가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의흥 스님은





태백금성의 이름을 따 산의 이름을 태백으로, 절의 이름을 텐동사로 지었다고 한다.

‘동남불국(东南佛国)’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큰 대찰인 텐동사는 그 규모만큼 큰 무쇠솥으로도 유명하다. ‘천승과(千僧锅)’는 ‘천 명의 승려를 위한 냄비’라는 뜻으로, 천동사 공양간에 실제로 1,000명분의 밥을 짓던 무쇠솥인데 그 크기가 흡사 대규모 욕조 같다. 후학 양성에 전념하기 위한 당시 스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가는 길에 심상치 않은 나무에 붙은 표지를 읽어 보니 115년 된 나무임을 인증하는 증서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곳의 나무들은 기본 100년 이상, 그중 가장 오래된 이 당백나무가 1,250살이었다. 사찰 이전 당시 세워져, 가지가 뽀얀 형상이 사자 같다고 하여 ‘태백사자백(太白獅子柏)’이라는 명칭을 얻었다. 오랜 시간 강인한 생명력에 많은 사람이 소원을 비는 곳이기도 하다.

절밭부터 식당에서 한참을 떨어진 원시에 가까운 푸세식 화장실까지, 평소 같으면 불평불만을 쏟아내며 입구까지 나와 현대식 화장실을 찾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텐동사

의 역사를 알게 되니 오히려 속세와 떨어져 있다는 것이 더욱 신성하게 느껴졌다. 실제 스님들이 수행하고 있는 절이기에 몇 가지 예절을 지켜 줄 것을 부탁받았는데, 실수로 법도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시 “아미타불”을 외쳐야 한다. 대륙의 스케일이라 했던가, 절로 고개를 위로 올려야 마주 볼 수 있는 거대한 불상들 앞에서 나도 모르게 아미타불을 읊조리곤 했다.

장제스의 별장으로 유명한 쉼터우산에 올랐다. 굽이굽이 길게 이어진 길에, 장제스는 왜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어려운 이곳에다 별장을 지었는지 의심이 들었지만, 봉우리에 서서 끝없이 펼쳐지는 풍경을 내려다보면 그 이유가 납득이 간다. 실제로 장제스와 그의 연인이었던 송메이링(宋美齡)은 마차를 타고 올랐다고 하니 두말할 필요가 없겠다. 송메이링이 즐겨 앉던 쉼터우산 절경 앞 묘고대(妙高台)의 돌담에도 앉아 보며 안개 낀 쉼터우산의 경치를 감상했다. 이어서 천 길 폭포라는 뜻의 천장암폭포(千丈岩瀑布)를 구경하는데, 천 길 낭떠러지로 수직으로 하강하는 폭포의 절경을 감상하고 있노라면 강한 물줄기의 물방울이 얼굴에 튀는지도 모르고 그 위용에 모두가 감탄사를 쏟아낸다. 쉼터우산 산행의 독특한 점은 산을 오르며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아닌 산 정상부터 아래로 내려오며 경치를 구경한다는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리며 다시 한번 실감하는 186미터 긴 천장암의 광경은 정말 인상적이다. 국가 5A급 풍경구로 중국 내에서도 관광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쉼터우산이다. 쉼터우산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폭포는 천장암이지만 사실 산 전체는 총 15개의 폭포로 이루어져 있다. 숨겨져 있기로 유명한 세 가지 폭포 삼은담(三隱潭)은 언젠가 드높은 쉼터우산을 굳이 걸어서 산행하며 찾아내고 싶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응몽리 밤거리. 저녁 식사 후 테마파크 응몽리(应梦里)를 방문했다. 민국 시기를 배경으로 한 거대한 영화 세트장처럼 생겨 볼거리도 참 많은 것이 한국의 민속촌과 닮아 있었다. 코로나로 영입이 어려워 많은 소점포가 문을 닫은 모습을 보고 있자니 참 안타까웠다. 제대로 관광이나 할 수 있으려나 걱정이 들던 찰나에, 배우들의 우렁찬 닐보 사투리가 들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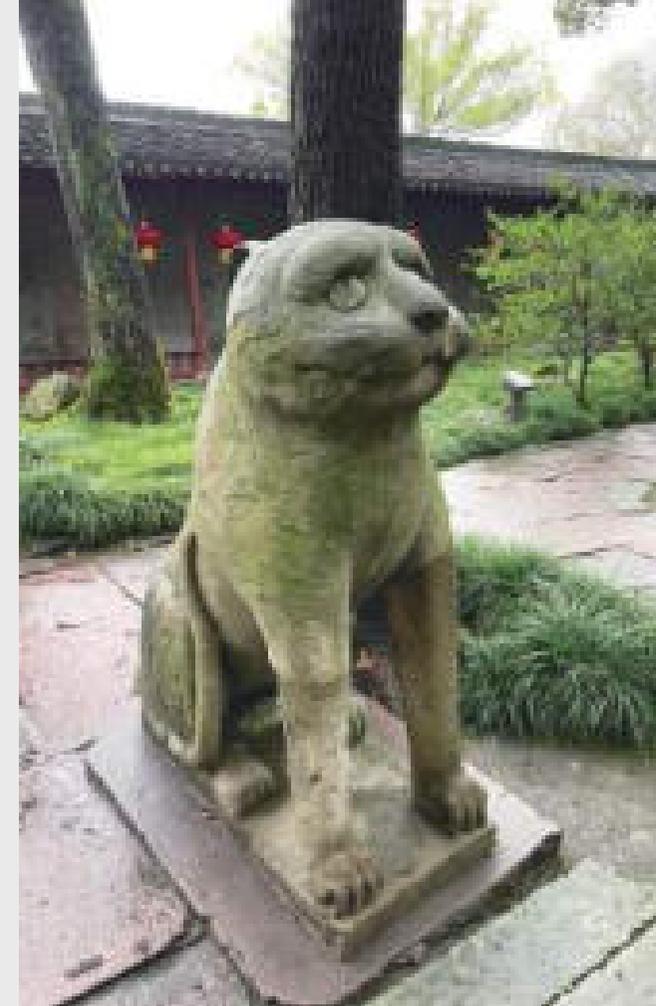
<최후의 여명(最后的黎明)> 외부 공연. 닐보의 강제 개항 시기 닐보방(宁波帮)을 주제로 한 공연이었다. 추운

날씨에 갑작스러운 외부 공연이었지만 당황스러움도 잠시, 각종 난투 씬과 와이어 액션, 굉음과 함께 물 튀기는 폭탄 효과까지 모두 눈으로만 담기 아쉽다는 듯이 너도나도 카메라로 영상을 찍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배우들이 큰 소리로 외치던 닐보 사투리까지 닐보인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다.

5일째, 고려사관(高麗使館)을 방문했다. 건물 한 채가 전부인 터라, 지금으로 치면 고려의 대사관 정도 되겠거니 기대했던 것보다는 아담한 규모였지만, 우리나라와 연관이 있는 유적을 방문하게 되어 감회가 새로웠다. 중국 대운하 남단의 바다로 나아가는 항구가 있는 닐보답게 고려 사신과의 교류가 많았다고 한다. 닐보의 옛 이름인 명저우(明州)와 고려의 교류 상을 연표대로 자세히 기록한 지도와 함께 송나라 휘종 황제의 친필 명(命)이 기록된 송휘종 어필비(宋徽宗御笔碑)가 자리하고 있다. 문화대혁명의 흔적인지 절반이 훼손된 비문의 모습은 아쉬움을 남겼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닐보의 자랑, 닐보박물관이었다. 중국 전역 대부분의 박물관은 입장료 없이 무료지만, 인구가 많은지라 번잡을 피하고 동시간 적절한 관람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시간별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 걸로 보기에 상당한 규모로, 내부 전시와 함께 건축물 자체로도 유명한 장소다. 2012년 역대 최연소이자 중국 최초로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왕수(王澐)가 바로 이 닐보박물관을 기점으로 유명세를 타게 됐다. 그도 그럴 것이 다소 투박해 보이는 외벽이 자세히 보면 모두 명청 시대의 벽돌들이다. 신도시 개발에 밀려 600년의 시간이 허무하게 무너져 버린 건축자재들이 다시 현대 박물관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다. 박물관 입구에서 내부로 들어가기까지 걸어서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 중간을 가로지르는 물길(박물관 내부)과 현재(외부)를 연결 짓는 하나의 상징 같았다. 물을 잘 활용한 건축은 바다와 접하고 물길이 내륙까지 닿는 천혜의 무역항 닐보의 정체성처럼 보이기도 한다. 언제나 ‘전통과 현대의 공존’을 중국 최고의 매력으로 꼽는 나에게, 닐보박물관은 입구에서부터 닐보라는 도시의 인상을 강하게 남겼다.

내부로 들어가서, 3층으로 나누어진 전시를 차례대로 관람했다. 과거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항구 도시답게 많은 나라와의 교류 기록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볼 수 있



었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다 보니, 당시 상황을 재현한 많은 인체 모형 중 삿갓을 쓴 모형이 눈에 띄었다. 바로 조선인 최부 관련 유물 코너다. 기록에 따르면, 최부는 조선 전기 문신으로, 부친상으로 제주도에서 배를 타고 귀가하는 도중 저장성의 란하이에 표류하게 된다. 이때 중국 정부의 도움으로 무사히 육지로 귀국하여, 이후 왕의 명을 받아 기록한 <표해록(漂海录)>에서 닐보가 표류의 첫 거점이었다고, 현재 그 유물과 기록이 이곳 닐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먼 중국의 도시에서 친근한 복장을 한 선조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다.



신의 주옥 닝보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닝보는 사실 중국 내에서 잘 알려진 빛나는 보석 같은 지역입니다. 신의 주옥이라 말할 수 있는 웅장하고도 수려한 자연과 수천 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은 전통 명소와 유물이 가득한 곳, 닝보. 하지만 닝보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곳이죠. 한국 사람들에게겐 원석이나 다름없는 닝보입니다. 이 닝보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찬란한 닝보의 아름다움을 가슴 가득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동남산수는 천하제일 溫州

대자연의 손길이 머무는 곳



다양한 저장성 관광지



연당산

雁蕩山, 안탕산



난시장

南溪江, 남계강



타이순량차오

泰順廊橋, 태순량교



장신위

江心嶼, 강심서



저장성 홈페이지

동아시아 문화도시 온라인전시관



한국 수원



한국 사이징

한국 제주



중국 윈저우



한국 경주



주최 | 저장성문화관광청 浙江省文化和旅游廳 주관 | 저장성문화관광마케팅센터 浙江省文旅推廣中心(首爾)